

뉴멕시코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1/2월호
2022



화조도

그림: 김숙희
(Suki Kim)

그림설명/
Cover Story
27페이지

CONTENTS

뉴멕시코 교민여러분! 윤태자 : 2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 김민순: 16
사진으로 보는 11/12월 한인회 행사 : 3	오미크론을 이기는 옴니 크라운 이창민:17
내 나침반을 꺼내보세요 김석훈 : 4	수필 : 과학 이정길 :18
뉴멕시코 한국학교 교장 인사 이수신 : 5	수필 : 참 잘했다! 나정자 : 19
매순간 감사함으로... 박광종 : 6	뇌졸중 치료제 개발 현황과 예방 최성원 : 21
11월 인플레이션, 6.8%로 상승 : 6	영어이야기 / Home is where ... 이상목 : 23
웹 우주망원경 성탄절날 우주로 발사 : 7	울림, 무중력의 순간 이지수 : 25
새운영자를 찾고있는 산타페 일본식당 : 7	Stilwell Kansas 에서 본 것 들 김준호 : 26
인디 500 네번의 우승자 알 언서 82세로 별세 : 8	화조도 김숙희 : 27
병원인력 부족으로 여행 간호사 늘어난다 : 9	우리도 이제 돌아가야 하나 이원식 : 28
2022년 한국 대선,미주한인 여론조사 주동완 :11	고대 상나라와 한국과의 관계 (上) 한승우 : 29
조심스럽지만 강하게 김기천 :13	당신은 하나님이 저절로 믿어 지나요? 이근재:32
우리는 왕족입니다! 나정용 : 14	뉴멕시코 한인교회/한인업소안내 : 33-35

뉴멕시코한인회

뉴멕시코 교민 여러분!



윤태자
뉴멕시코주
한인회 회장

교민 여러분께 새해인사 올립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2022
년 임인년 힘차게 달리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민 여러분께 한인회의 지난 11월, 12
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 6.25 참전용사 Jim Hofsis
씨의 장례식에 어버이회 몇분과
회장단이 참석하였습니다.

11월 13일 오랫동안 한인회에서
봉사하신 김진화씨께서 어버이회
회원들과 지인들을 모시고
한인회관에서 손녀딸이 뽕잔치를
하였습니다.

11월 20일 김치축제가 있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갖가지 김치를
담는 사흘간의 강행군에 이를 이상
나오셔서 봉사 하신분이 21명
이셨습니다.

감사한것은 모두들 술선수범하여 김치
축제를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함께
일했다는 것입니다.

김치축제 당일에 떡볶이와 한국학교
학부형들이 만든 달고나는 완판이
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좋은 성과를
내고 마친 김치축제에 수고하신
모든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12월 6,7,8일 사흘간 총영사님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뉴멕시코 주립대학에서 강연 하셨고
참전용사와 정관위원들의 격려오찬,
뉴멕시코 주지사 면담, 한인회 임원
만찬 간담회등이 있었습니다.

12월 7일에는 영사업무팀 3명과
재외동포 유권자 등록을 위해
오신 영사팀 2명이 한인회관에서
영사업무를 보았습니다. 영사업무는

총 115건을 하였습니다. 엘에이
총영사관에서 3팀의 영사님들이
같은곳에 출장 오신것은 처음이라
하였습니다.

총영사님 방문시 뉴멕시코
주립대학에서 함께 해주신 김광철
교수님, 이명길 목사님, 이사장
윤진옥씨, 산타페 방문시 로스
알라모스에서 이사 차진주씨,
임경애씨, 김석훈 목사님께서 가이드
해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12월 18일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수정된 정관과 기타안건인 회비가
총회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정회원
회비는개인 30불 가족 50불로
책정되었습니다. 현금 후원하신분들과
이사회비 내신분은 정회원이십니다.
한인회 정회원 등록용지는 회관에
비치하며 한인회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우편으로 한인회에
보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사무총장 이지수씨와
한국학교 교장 이수신씨께서 행정업무
보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형재영씨와 부회장 김진옥씨가 회관에

힘이 필요할때마다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계 조문성씨, 부회장
이영혜씨, 어버이회 부회장 신승금씨,
회계업무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행사때 무용을 가르키고 공연하신
연예부장 이희정씨 수고 하셨습니다.
김민순 목사님, 한인회 웹사이트
관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년말에 있는 어버이회 망년회는 전직
두분의 여자 회장님들이 후원해
주셔서 푸짐하게 준비 했습니다. 또한
한인회에 필요한 물품을 넉넉하게
후원해 주시는 김태원씨와 이사
위점덕씨께 감사 드립니다. 새해부터
한인회 회계는 김미경씨, 어버이회
부회장은 강은선씨가 수고 하십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이사진, 임원진,
교민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하여 모든
일정이 잘 치루어지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교민 여러분 많은 성원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제 19대 한인회장
윤태자드림



A-1

日本の食品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1orientalmarket.com
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뉴멕시코한인회

사진으로 보는 지난 11/12월 한인회 행사



뉴멕시코 김치축제 2021.11.20



뉴멕시코 김치축제 2021.11.20



총영사님, 6.25 참전 용사와 오찬. (엘핀토) 참전용사 메모리얼 파크에서 헌화



총영사님과 산타페 방문



영사님들과 오찬



한인회관에서 영사업무 21.12.7.



한인회 정기 총회 21.12.18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CUDDY & McCARTHY, LLP
Attorneys at Law
www.cuddymccarthy.com

우리 로펌은 1917년에 근간을 둔 다양한 분야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산타페와 알버커키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노영준(Jun Roh)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201 Third St. NW Suite 1300,
Albuquerque, NM 87102.
(505) 888-1335**



신년 메시지

내 나침반을 꺼내보세요

김석훈

산타페한인교회
담임 목사



안녕하세요. 저는 산타페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석훈 목사입니다. 로스알라모스 내셔널 랩과 산타페의 한인분들을 대상으로 목회하고 있는데, 제가 이곳에 부임한지 벌써 6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세월이 너무나 빠름을 실감합니다.

우리 뉴멕시코의 한인분들은 정말 사랑이 넘치고 따뜻해서 고국에서 목회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그와같은 서로간의 사랑으로 이 팬데믹의 지루하고 힘든 시간들을 서로 협력하며 잘 이겨내고 계신듯하여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새로 밝아오는 새해에도 신종변이로 인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는 글로 함께 나누려 합니다.

나침반의 바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킵니다. 이 쪽 저 쪽 나침반의 방향을 바꿔보아도, 이리 던지고 저리 던져보아도 항상 바늘은 좌우로 운동을 하다가도 끝내는 북쪽을 향해 정렬합니다.

그것은 지구에서 흘러나오는 자력이 자성을 가진 바늘을 북쪽으로 고정시키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그리고 어떤 충격에도 나침반의 바늘은 오직 북쪽만을 향할 뿐입니다.

그렇게 나침반을 떠올리며 우리네 인생의 나침반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 나침반은

양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생활 곳곳에서 100% 정직하지 못하고 100% 정결하지 못하고 100% 온전하지 못해 다소 좌우로 흔들려도 우리 내면의 '양심'이라는 '나침반'에 의해 다시금 삶이 조정되고 정비될 때 인생은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행복한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에도 나침반이 있음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인생의 굴레를 벗어 버릴 때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줄 나침반 말입니다.

그 나침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왔던 처음의 장소를 가리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나침반은 모두의 영원한 고향인 하늘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행로를 이끌어줄 분을 가리키며 그분 품으로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어두운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나의 나침반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혹시, 바늘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이 혼돈의 시기에 오히려 내 삶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내 영혼의 나침반을 조용히 꺼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네 인생은 너무나 짧고 모든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디 수많은 인생의 고뇌 속에서 나의 영혼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 새해에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뉴멕시코 한국학교 선생님 초빙 공고

초빙분야 및 수고비

한글 선생님 3년이하 경력자 \$22.50/H

3년 이상 경력자 \$25.50/H

음악 선생님- 상담후 조정가능

미술 선생님- 상담후 조정가능

고등학생 자원봉사자 (보조교사) - 수고비 없음

문의 및 상담은 교장에게 연락바랍니다.

전화 및 문자: 505-515-4677

이메일: nmkoreanlanguage@gmail.com

뉴멕시코 한국학교 교장 인사

이수신

뉴멕시코 한국학교장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뉴멕시코 학부모 및 한인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동안 뉴멕시코 한국학교는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인회와 한인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후원으로 노후화된 회관을 보수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모국어인 한글을 학습하고 여러가지 특별활동을 통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배우며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인 어린이들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할수있도록 깨끗하고 아담한 교실들을 갖게되었습니다. 학교를 대표하여 다시한번 후원해 주신분들께 뜨겁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열정적인 선생님들을 모시고 여러가지 좋은 프로그램과 특별활동등을 통하여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체험을 할수있도록 하고 싶었지만 팬데믹 상황과 주말학교라는 한계에 부딪혀 아쉬움이 많은 한 해였던것 같습니다.

2022년 봄학기 부터는 유아, 초등반과 중.고등반의 수업시간을 분리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눈높이에 맞는 한글 수업과 특별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사정으로 한국학교 프로그램에 무관심했던 많은 우리 한인 어린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한글학습과 더불어 여러가지 경험과 추억을 만드는 터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한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합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여러가지

특별활동과 함께 창의성, 협동성, 집중력을 향상할수 있도록 합창반과 미술반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동요나 가곡등을 익힐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선생님과 미술과 한글서예등을 지도해 주실 선생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전공하셨거나

교육 경험이 있는 분들은 우리 커뮤니티와 어린이들을 위해 훌륭한 재능을 발휘해 주실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새해에는 뉴멕시코 한인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좋은 일들만 밀물처럼 들이닥치길 두손모아 기원합니다.

뉴멕시코 한국학교장 이수신

뉴멕시코 한국학교

2022 봄학기 한글반 등록안내

봄학기 한글반 개강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학생들이 한글학습의 혜택과 함께 한민족이라는 정체성과 한인학생들간의 유대감을 향상시키는 많은 기회를 제공할려고 합니다.

- 수업료: \$165.00 (둘째 \$150.00, 셋째부터는 무료)
- 등록비: \$30.00 (조기등록시 면제2022년1월15일까지 등록시)
- 수업요일 및 시간: 유아및 초등학생반: 매주 토요일 오전 9:10-12:30
중고등학생반: 매주 토요일 오후 1:00-4:00
성인반 1 (초급, 중급, 고급반) 매주 금요일 오후 5:30-7:30
성인반 2 (초급, 중급, 고급반) 매주 토요일 오후 4:30-6:30
- 봄학기부터는 한 학급당 최소인원이 5명입니다. (5명미만일 경우 통합 또는 취소됨)
- 수업기간: 1월 28일 부터 5월 7일 (APS 봄방학주는 수업없음)
- 학교위치 및 주소: NM Korean Language School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 *문의 및 상담: 이수신 교장
문자 및 전화: 505-515-4677
이메일: nmkoreanlanguage@gmail.com
Web: kaanm.com (홈페이지 상단 Language school)
- 오리엔테이션 및 학급편성: 1월22일 토요일
오전 10:00-10:50 (유아, 초등, 중고등반)
오전 11:00-11:50 (성인반)
- 수업료 및 등록비 납부방법: 등록신청서 작성후 체크나 머니오더 동봉후 우편으로 납부 (pay to the order of: KAANM, 책 왼쪽하단에 학생이름 기재요망)
등록신청서는 학교에서 배부 혹은 KAANM.com 에서 프린트 가능.
- 환불없음, 단 학급취소시 전액환불
- 수업은 대면으로 하고 온라인 수업도 개강합니다.
원하시는 수업란에 in-person 혹은 zoom에 표시하세요.
- 온라인 수업시에는 @gmail.com 이메일 사용필수

한국학교는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와 주정부 보건국의 지침을 따릅니다.

KOWIN 소식

매순간 감사함으로...



박광종

뉴멕시코 코윈 지부장
하이랜드대학교수

코로나로 배운 것이 있다면 현재 이 시간에 충실하게 감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갑작스런 부고소식에 정말 사람의 일은 몇년을 두고 우리가 세워두는 계획도, 오랜 시간을 함께 할 거라는 기대감도 다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지금 이순간 내게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지금 나와 함께 하는 이들로 인해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감사하고, 순간순간 쌓아가는 추억에 감사해야 함을 배운다. 코윈은 여름 코윈캠프에 이어서 김치축제에서는 민화를 부채와 책갈피,

컵받침에 그려보고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이들과 차세대에게 한국문화를 전하고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자신의 염원과 소망을 담았듯이 민화체험을 하는 이들의 붓놀림으로 하나하나 그들의 소망과 추억 또한 완성해갔다. 연말은 가족들과의 또 하나의 전통을 만들어가고 추억을 남기는 시간들이지만 가정폭력피해자와 그들의 자녀들엔 설 휴식처가 필요한 시간이다. 코윈회원들은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동안 필요한

쉼터에 500불을 기부하였고, 예전에 식사봉사를 하였던 로털드맥도널드에 이제는 직접 식사봉사를 할 수 없는 관계로 200불을 기부하였다. 예전에 회원들과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웃음꽃과 이야기꽃을 피우던 그 때가 그리웠다. 코로나가 종식하고 다시 같이 봉사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대해본다. 2022년 임인년에는 호랑이처럼 용맹하고 지혜롭게 코로나를 헤쳐나다녀도 감사할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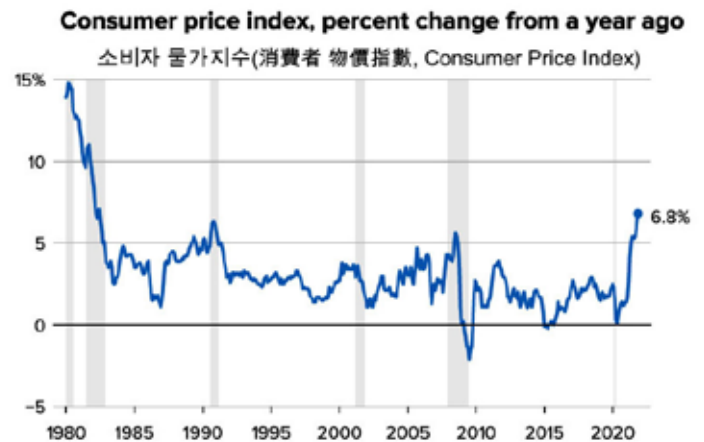
국내소식

11월 인플레이션, 1982년 이후 가장 높은 6.8%로 상승

노동부는 금요일 인플레이션이 1982년 11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어 경제 회복에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미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의 관여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11월에 와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1982년 6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한 달 동안 0.8% 상승했으며 전년 대비 6.8% 상승했다.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이른바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5%, 1년 전보다 4.9% 상승해 1991년 중반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에너지 가격은 11월의 3.5% 급등을 포함하여 2020년 11월 이후 33.3% 상승했다. 가솔린만 58.1% 상승했다. 식품 가격은 1년 동안 6.1%

상승했으며 인플레이션 폭발의 주요 원인인 중고차 및 트럭 가격은 지난달 2.5% 상승에 이어 31.4% 상승했다.

노동부는 식품 및 에너지 구성요소의 증가가 최소 13년 만에 가장 빠른 12개월 증가라고 말했다. 미 연방준비제도 관리들은 인플레이션 상승을 팬데믹과 관련된 요인으로 돌렸다. 가격 인상이 정책 입안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하고



지속적이기는 했지만 상품에 대한 강력한 소비자 수요와 공급망 병목 현상이 주요 요인이었다라고 했다. 출처:CNBC 'Inflation surged 6.8% in November, even more than expected, to fastest rate since 1982', DEC 10 2021 by Jeff C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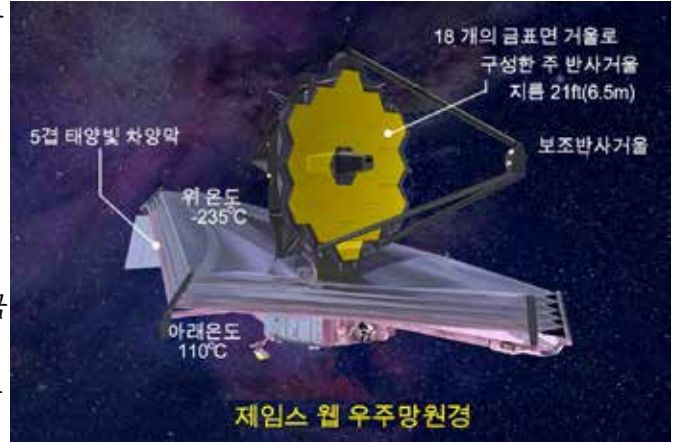
NASA 소식

웹 우주망원경 성탄절날 우주로 발사

새로운 ‘인류의 눈’ 제임스 웹(James Webb) 우주망원경이 크리스마스 날에 우주로 떠났다. 제임스 웹은 기존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100배 뛰어난 성능으로 130억년 전 초기 우주를 살펴볼 예정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은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이 25일 오전 9시 20분(현지 시각) 프랑스령 남미 기아나 유럽우주센터에서 아리안 5호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고 밝혔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1996년에 시작된 우주 프로젝트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1990년부터 임무를 수행 중인 허블보다 성능이 개선된 우주망원경을 만들기 위해 나사(NASA)와 유럽우주국(ESA), 캐나다우주국(CSA)이 개발에 참여했다. 연구·개발에 25년간 100억달러이상 투입됐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핵심은

금으로 입혀진 반사 거울 18개로 이뤄진 주경(Primary Mirror)이다. 금을 코팅한 베릴륨으로 만든 육각형 모양의 반사 거울을 연결해 벌집 형태로 만들었다. 주경의 전체 지름은 6.5m다. 허블 망원경(2.4m)의 2.7배로 면적도 6배 크다. 그만큼 우주에서 오는 빛을 더 잘 모을 수 있다. 나사는 “허블 망원경보다 100배 더 희미한 물체를 구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임스 웹은 지구에서 150만km 떨어진 곳으로 약 한 달간 이동할 예정이다. 지구와 달 사이보다 약 4배 먼 거리다. 이곳은 ‘라그랑주 L2’ 지점으로 태양·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중력)과 물체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밖으로

벗어나려는 힘(원심력)이 서로 상쇄돼 중력이 미치지 않으며 태양이 항상 지구 뒤에 가려져 햇빛의 방해받지 않는다. 망원경에 달린 테니스장 크기(길이 21m) 차양막이 지구와 달에서 반사되는 빛도 막아준다. 제임스 웹은 6개월간의 시험 운영



후 10년간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가장 멀리 떨어진 은하와 먼 행성의 대기, 우주 먼지 속에 가려진 별의 형성 과정 등 우주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천문학을 다시 쓰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역소식

새운영자를 찾고있는 산타페 일본식당

산타페 다운타운에 있는 코나미(Kohnami)일본 식당의 오너이신 희주씨는 식당업에서 은퇴를 계획하면서 새로운 사업자에게 식당을 매매할 계획이라고 한다. 코나미 일식 식당은 23년간 꾸준히 성장하며 시민의 사랑을 받아온 산타페에서는 유명한 일식 식당중 하나이다. 식당위치는 313 S. Guadalupe St. Santa Fe로서 다운타운에 있는 공공 주차장 Sandoval Parking Garage, 또는 엘도라도 호텔에서 남쪽이 되는 De Vargas Park옆에 있다.



관심 있으신 분은 505-470-1561 으로 연락 주기를 Owner이신 Hee Joo

씨는 바라고 있다. 사진:Kohnami Japanese Cuisine

지역소식



인디애나폴리스 500 네번의 우승자 알 언서 82세로 별세

인디애나폴리스 500에서 4번의 기록을 세운 단 4명의 드라이버 중 한 사람인 뉴멕시코 알버커키 출신의 알 언서(Al Unser)는 12월 9일 목요일 향년 8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전국 신문과 미디어 보도에 의하면 12월 9일 알 언서는 뉴멕시코주 차마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 수잔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망했다고 한다. 그는 17년 동안 암과 투병해 왔었다. 인디 500에서 두 번이나 우승한 아들 알 언서 주니어(Al Unser Jr.)는 소셜 미디어에 부친의 죽음을 알리는 글에서 “위대한 아버지를 잃어서 슬픔입니다.”라고 부고 소식을 올렸다.

알 언서는 1970년, 1971년, 1978년 및 1987년 네번이나 인디 500에서 우승했으며 그의 마지막 승리는 그의 나이 47세 때여서 인디 500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우승자가 되었다.

알 언서의 만형이며 인디 500에서 3번의 기록을 세운 바비언서(Bobby Unser)는 금년 5월에 사망했으며 그의

아들인 바비언서주니어(Bobby Unser Jr.)는 아버지의 사망한 뒤를 따라 6주 후에 사망했다. 금년 12월 알 언서의 사망은 2021년에 언서 가족으로 세 번째 사람이 된다.

언서 가족의 자동차 레이싱(경주)의 열기는 대단했다. 인디 500 경주에 참가회수를 보면 총 73회가 된다. 알언서가 27회, 바비언서가 19회, 알 주니어 19회, 이어서 Johnny (5회), Robby (2회) and Jerry (1회)가 모두 언서 가족이었다.

알버커키 서쪽에 있는 리오란초와 사우스밸리를 사이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도로 Unser Blvd. 는 언서 가문의 이름을 따서 도로명이 지어졌고 센트럴가 서쪽에 최근에 신축된 시립도서관 ‘Central-Unser Public Library’ 도서관 이름 역시 언서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알버커키에 있는 언서 레이싱 박물관(Unser Racing Museum)은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으로



언서 가족의 자동차 경주자 내력과 경주에 사용된 자동차, 경주(레이싱)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주소는 1776 Montano Road NW, Los Ranchos de Albuquerque NM 87107. 홈페이지 <https://unserracingmuseum.com/>에서 언서 자동차 경주 박물관의 자세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지역소식

병원인력 부족으로 여행 간호사 늘어나다

(알버커키 저널 21년11월20일 Business Outlook에 나온 'Rise of the travel nurse' 기사를 요약해서 소개 합니다:편집부)

스티븐 햄웨이
저널 스태프 작가

뉴멕시코에 계신 여러분이 요지음 이곳 병원에 환자로 입원한다면 해당 병원에 속한 간호사가 아닌 단기간 임시 채용되어 일하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평소보다 더 높다.

최근 COVID-19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간호직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멕시코주 전역의 여러 병원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여행 간호사(Traveling nurses)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다. 여행 간호사라는 용어는 어느 병원에 소속 되지 않고 바쁜 시기에 일정 기간 동안만 일하고 떠나는 임시직 출장 간호사를 뜻한다.

병원 및 의료 협회 관계자들은 간호직의 인력 부족을 메우는 데 여행 간호사를 고용함으로써 문제해결은 되지만 병원 비용이 정규 직원 간호사보다 몇 배나 더 많이 드는

이러한 여행 간호사에게 의존하는 것은 전염병이 지속됨에 따라 병원재정이 힘든 상황에 빠뜨려 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프레스비테리안 건강 서비스(Presbyterian Healthcare Services)의 수석 부사장 겸 최고 운영 책임자인 팀 존슨(Tim Johnsen) 씨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뉴멕시코 병원 협회가 9월에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뉴멕시코 간호 인력의 12%가 순회 간호사로 충당되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가장 높은 수치라고 협회 회장이자 CEO인 트로이 클락 (Troy Clark) 씨가 밝혔다. 프레스비테리안, UNM 대학병원 및 러브레스 병원(Lovelace Health System)의 관리들은 각각 COVID-19전염병이 시작되기 이전

보다 훨씬 더 많은 여행 간호사를 직원으로 두고 있음을 확인한바 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여러 병원의 소식통에 따르면 병원에서 고용한 순회 간호사 수는 3월 팬데믹이 뉴멕시코에 도달한 이후 크게 증가했다.

지난달 버나리오 카운티 위원회 회의에서 UNMH의 CEO인 케이트 베커(Kate Becker) 씨는 이 병원에 약 500명의 여행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레스비테리안(Presbyterian) 병원의 존슨 씨에 의하면 417명의 여행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러브레이스(Lovelace)병원의 최고 의료 책임자인 베스타 산도발(Vesta Sandoval) 씨는 이달 초 병원에 255명의 순회 간호사가 근무했으며 이달 말 이후 최소 20명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클락(Clark) 씨는 뉴멕시코에서 COVID-19가 주에 도달 하기 오래 전부터 간호사와 기타 의료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말해 왔다. Clark씨는 2019년 뉴멕시코의 간호사가 약 6,200명 부족하다는 입법 재정 위원회의 2020년 연구를 인용했다.

뉴멕시코 간호사 협회(New Mexico Nurses Association)의 데보라 워커

The Garage

AUTO REPAIR

30년 경험의 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2년 연속 알버커키저널 독자가 선정한 최고의 자동차 정비업소
문의사항 (505)352-5152



근무시간: M-F 7:00am-6:00pm (토,일 휴무)
웹사이트: <http://thegaragenm.com>
주소: 6441 Western Trail NW Albuquerque, NM 87120

(Deborah Walker) 전무는 팬데믹 기간 동안 환자를 치료하는 데 1년 반 이상이 걸리면서 병원은 간호사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혀 왔다고 말했다. Walker씨는 "이런 현상은 정상이 아니며 번아웃(Burnout)으로 이어집니다."라고 말했다.

병원협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9월 현재 간호직의 17%가 공식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간호사는 간호직을 완전히 떠났고, 다른 간호사는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순회 간호사로 전직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병원이 여행 간호사에 더 의존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Sandoval씨는 "불행하게도 뉴멕시코에서 많은 간호사가 떠났습니다." 라고 말했다.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여러 병원 리더들은 여행 간호사가 시스템에 대한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닌 이유에 대해 비용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은 임시로 간호사를 데려오기 위해 항상 프리미엄을 지불했지만, Clark씨는 전염병이 시작된 이후 높은 수요와 제한된 공급으로 인해 비용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최근 COVID-19 사례가 급증하기 시작한 이후 병원은 정규 직원의 간호사에게 임금 인상 및 기타 보너스를 제공했지만 여행 간호사에 대한 임금 인상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Clark씨는 말하면서 이는 "재정적 낭비이며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했다.

그는 또 이어서 직원중에 다수의 순회 간호사가 있게 되면 문화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여행간호사는 지역 사회의 문화적 특이성에 익숙하지 않거나 새로운 병원시설의 배치를 배우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장은 여행 간호사와 직원 간호사 간의 임금 격차가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문제는 입찰 프로세스 자체이다. 텍사스와 플로리다와 같이 인구가 많은 주에서 지역 COVID-19 사례가 급증하면 뉴멕시코 병원이 필요한 간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Johnsen씨는 말했다. 그 까닭은 전국의 인력공급 수준에서 경쟁해야 하는 까닭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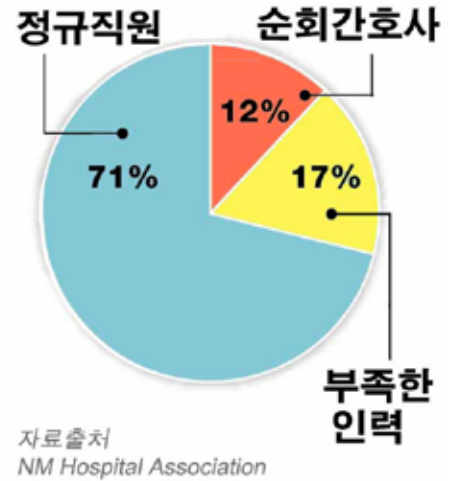
앞으로 갈 길은?

팬데믹은 현재 간호사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업계에 진입하는 인재의 파이프라인에도 영향을 미쳤다.

CNM대학(Central New Mexico Community College)의 간호 프로그램 부학장인 Diane Evans-Prior씨는 대유행과 관련된 폐쇄로 인해 간호 학생들이 병원을 방문하고 지역 병원에서 임상 실무경험을 통해 배우는 로테이션을 잃게 되었다고 말했다.

관계 지도자들은 뉴멕시코의 고갈된 간호사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주 및 연방 지원을 찾고 있다. 병원 협회는 다가오는 입법 기간 동안 간호 프로그램의 수용력을 늘리기 위해 주 고등 교육부에 1,500만 달러 자금 할당을 모색하고 있다. 그 자금은 추가 교수진과 겸임 교수를 영입하고 학생 여행 수당 및 기타 비용에 사용될 수 있다.

뉴멕시코주 간호 인력현황



병원 협회는 또한 국가 자금을 병원에 직접 투입할 것도 요청했다. Clark씨는 뉴멕시코 병원이 미국 구조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및 기타 경기 부양 패키징으로부터 연방 기금으로 3억 6천만 달러 이상을 받았지만 전염병이 시작된 이후 병원은 약 6억 5천만 달러의 수익과 비용 증가를 잃은것으로 추산한다고 덧붙였다.

Clark씨는 "3억 6천만 달러가 엄청난 숫자처럼 들리지만 이 금액이 이 주에서 손실된 수익 또는 증가된 비용의 절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십시오."라고 말했다.

Walker씨는 병원이 순회 간호사에게 지출하는 돈의 액수를 면밀히 살펴보고 간호사를 유지하기 위해 그 자금을 직원 간호사에게 재할당하는 것을 고려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환자와 그 가족이 함께 일하는 간호사에게 더 친절하고 동정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것을 요청했다.

미주한인사회

2022년 한국 대선에 대한 미주한인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주동완 원장은 뉴멕시코 한인회 초청으로 지난 21년 10월 알버커키에 오셔서 ‘풀뿌리 운동’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다. 광야의 소리 21년11/12월호 4페이지 기고문 참조:편집부)

주동완

코리안리서치센터 원장



코리안리서치센터(원장 주동완)에서 ‘2022년 한국 대선에 대한 미주한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기간은 2021년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이었으며, 조사 설문지는 총 1,524명에게 카톡과 이메일을 통해 전달했으며 응답자는 165명으로 조사 응답률은 10.8%였다. 조사문항은 대선과 관련된 질문 5개 문항과 인구학적 질문 3개 문항 등 총 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는 대선 관련 질문 5개 문항에 대한 통계분석과 함께 3개의 인구학적 질문에 대한 후보 지지도를 교차분석하여 설문조사 분석의 정밀도를 더했다.

1. 조사응답자의 성격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응답자들의 성격은 성별, 연령별, 이민연수별 등 3개의 변수로 조사되었다. 먼저 성별 항목에 응답한 응답자수는 158명으로, 이 가운데 남자는 64%, 여자는 36%로 남자 응답자가 여자 응답자보다 많았다. 연령별 조사응답자 현황은 총 161명의 응답자 가운데 30대가 2%, 40대가 5%, 50대가 18%, 60대가 42%, 70대가 28%, 80대 이상이 5%였다. 60대의 조사 참여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았으며 30대와 40대 등 젊은 연령층의 조사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민연수별 조사응답자 현황은 총 162명의 응답자 가운데 10년 이내 거주가 7%, 11년~20년 거주가 12%, 21~30년 거주가 22%, 31~40년 거주가 29% 그리고 40년 이상 거주가 30%로 나타났다. 미주 한인들의 신이민이 시작된 것이 1965년 개정이민법이 발효된 이후부터라고 할 때, 이제 미주 한인들의 이민 역사도 56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민연수가 30년 이상 된 한인들이 전체 조사응답자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2. 통계분석 결과

2022년 한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본 선거에 대한 관심도, 투표권의 유무, 투표권이 있는 경우 투표 참여정도, 지지하는 후보 그리고 본 조사 당시 지지했던 후보가 앞으로 90여 일 남은 선거유세기간 동안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다. 먼저 2022년 한국 대선에 대한 미주한인들의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2022년 한국 대선에 관심이 있으십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총 161명이 응답한 결과, ‘관심 있다’가 87%, ‘관심 없다’가 13%를 차지해서 미주한인들이 상당한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설문조사의 응답자들이 한국 대선에 투표권이 있는지의 유무를 알기 위해 “귀하는 2022년 한국 대선에 투표권이 있으십니까?”라고 질문했다.

총 159명의 응답자 가운데 ‘투표권이 있다’는 응답자가 34%, ‘투표권이 없다’는 응답이 66%로 나타났다. 투표권이 없다는 응답이 66%인 것은 미주한인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률과 거의 비슷한 수치다. 한국 대선에 대한 투표권과 관련하여 투표권이 있는 경우 투표 참여율을 알아보기 위해 “2022년 한국 대선의 투표권이 있다고 하셨는데, 귀하는 투표를 하실 예정입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조사응답자 65명 가운데 71%는 ‘투표할 예정이다’라고 응답했고, 29%는 ‘투표하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응답해서 높은 투표 참여율을 보였다. 한국 대선 투표권 유무에 대한 응답자 159명 가운데 투표권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4%로 실제 사람 숫자로는 54명이 되어야 하는데 조사에서는 65명으로 나타나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2년 한국 대선에는 본 조사가 실시되기 직전인 11월 30일 현재 모두 12명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 12명의 예상 대선 후보자들을 모두 놓고 “귀하는 2022년 한국 대선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십니까?”라고 후보 지지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윤석열 후보가 48.3%로 가장 높은 지지도를 나타냈으며, 2위로 33.6%의 지지를 받은 이재명 후보보다 14.7%p 더 높은 지지를 받았다. 그 외 안철수 후보가 5.4%, 김경재 후보가

미주 한인들 윤석열 48.3%, 이재명 33.6% 지지.. ‘정권교체’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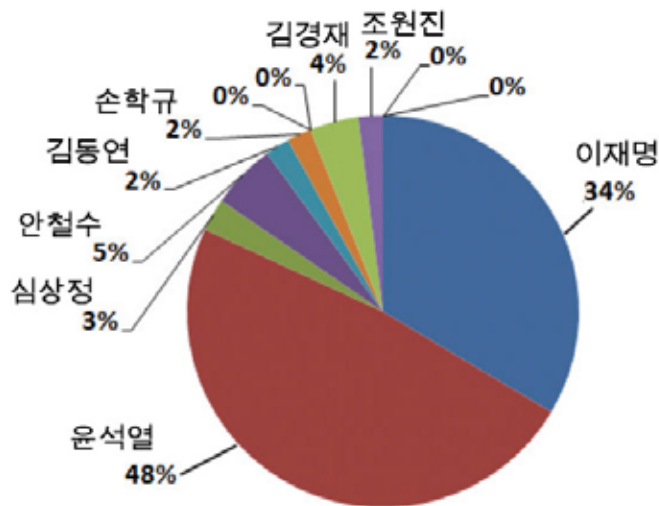
4.0%, 심상정 후보가 2.7%, 김동연 후보, 손학규 후보 그리고 조원진 후보가 각각 2.0%씩의 지지를 받았다. 본 조사 시점인 12월 5일부터 2022년 한국 대선이 있는 3월 9일까지는 아직 90여 일이 남아 있으므로, 조사 응답자들의 지지 후보자에 대한 충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의 위의 선택이 내년 선거일(2022.3.9)까지 상황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총 응답자 151명 가운데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0%인 반면 80%의 응답자는 ‘바뀔 가능성이 없다’라고 응답하여 조사응답자들의 지지 후보자에 대한 높은 충성도를 나타냈다.

3. 교차분석 결과

각 후보자별 지지율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 후보 지지율을 성별, 연령별, 이민연수별 등의 인구학적 변수들과 교차분석했다. 본 교차분석에서는 가장 우세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먼저 성별에 따른 지지후보자 현황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단, 여자의 경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보다 21.4%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재명 후보의 가족 욕설과판문이나 여배우와의 스캔들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미주 한인 여성들의 지지를 덜 받은 요인으로 보인다.

연령별에 따른 후보자별 지지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는 30대와 50대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윤석열 후보는 40대, 60대, 70대, 80대 이후 세대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는



2022년 대선후보자들에 대한 미주한인들의 지지도

한국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단, 40대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보다 높게 나온 것은 한국의 여론조사와는 다른 조금 특이한 현상으로 보여진다. 이민연수별 후보지지도에 있어서는 이민연수가 11~20년, 31~40년된 응답자의 경우 이재명 후보자의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보다 높았으며, 10년 이내, 21~30년, 40년 이상된 응답자의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보다 높게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조사 응답자들의 지지 후보자들에 대한 충성도는 80%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의 충성도는 88.9%로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의 충성도 83.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충성도를 각 후보자별로 보면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의 충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결론

2022년 한국 대선에 대한 미주

한인들의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48.3%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33.6%보다 14.7%p 높게 나타났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보다 여성 응답자들, 40대, 60대, 70대, 80대 이상의 연령층 그리고 이민연수가 10년 이내, 21~30

년, 40년 이상된 응답자들의 지지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지자들의 충성도 면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으로 본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미주한인들도 2022년 한국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더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리안리서치센터에서는 1997년부터 한국과 미국의 대선이 있을 때마다 뉴욕과 미주 한인들의 여론조사를 실시해왔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본 설문조사에 응답해준 응답자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미주한인들에 대한 여론조사에 보다 많은 미주한인들이 참여해줄 것을 당부드리고자 한다. 이제 미주한인들은 미국의 선거에 참여하여 미국에서 한인들의 정치력을 향상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선거에도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서 한국에서 미주한인들의 정치력도 향상시켜야 한다. 이는 미주 한인사회의 발전과 2세대의 미래를 위해 아주 중요한 일이다.

조심스럽지만 강하게



김기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2022년 새해를 맞이하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던 지난 2021년 7월부터 교회 문을 열면서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식사를 나누는 친교 모임도 갖기 시작했지요. 그동안 인터넷 예배에 익숙해 있었기에 처음에는 교회 대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욱 실감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예배는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셨지요. 사실 인터넷으로 친교를 하는 것보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친교를 하는 것은 달라도 아주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출석률이 점점 상승되면서 이제는 거의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매주 수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면 맥도날드로 가서 식사를 했었지요. 항상 김준호 장로님께서 아카데미에 위치한 맥도날드에서 아침을 사셨기에 그 장소를 “김 장로님 맥도날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거의 2년 동안 그와 같은 교제가 중단되었었지요. 그러다가 지난달부터

매주 화요일 새벽예배를 마치면 퍼네라 식당(Panera Bread)에 가서 친교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목요 새벽예배를 마치고 박광중 집사님께서 알버커키 명소라며 교인들을 빅스 식당(Vics Daily Cafe)로 초대해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친교를 나누었지요. 돌이켜보면 교회 예배와 소모임들은 점점 정상화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 2022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오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기를 기대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미크론으로 변종이 생기면서 사라지기는커녕 감염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조심스럽지만 강하게” 새로운 각오를 다짐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에 모임을 가질 때마다 마스크를 쓰도록 독려하고 조금이라도 감기나 독감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회복 될 때까지 집에 머물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Zoom으로 모임을 갖도록 권면합니다.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손을 소독하거나 비눗물로 씻어 할 수 있는 대로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도록 권하지요.

예배나 소모임은 회복이 되어가고 있지만 교회 내에 행사나 활동을

위한 행정적인 조직은 아직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새해에는 행정조직을 새롭게 재정비해서 교회 행사나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예배뿐만 아니라 교육, 봉사, 친교, 선교, 전도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뉘어져 활동하면서 서로 협력함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부서로 설정해서 각 부서들이 중심이 되어 행사나 활동을 해왔지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지금까지는 이런 행사나 활동이 중단되었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각 부서들이 다시 세워지고 다양한 교회 행사나 활동들이 재개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미크론 코로나의 기승으로 모든 일에 조심해야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간다면 새해에는 다른 어느 해보다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으리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전염병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교회 교우들의 가정, 기업, 직장, 학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모든 교우들이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신앙생활을 더욱 강하게 추진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칼럼

우리는 왕족입니다!



나정용

뉴저지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제가 소년 시절에 섬겼던 교회에
미국인 여 선교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께서는 서툰 한국말 이지만
조금도 개의치 않고 한국말로 설교
하기를 좋아 하셨습니다. 어느해
신년 첫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새년’이 왔습니다.” ‘새해’
를 ‘새년’이라고 표현하였기 때문에
청중들이 웃기 시작 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교인들이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보시고 신이 난 이 선교사님은
더욱 큰 소리로, “여러분! ‘흔년’은
지나가고 ‘새년’이 왔습니다. 다같이
새마음으로 힘차게 맞이 합시다.”
청중들은 더욱 배를 부여잡고 웃음을
참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365일을 또 지냈습니다. 그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케 하시는 그 분의 역사속에
우리는 만가지를 경험하며 꿈꾸며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저절로 ‘새해’
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새해가
되었다고 저절로 ‘새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자기가 누구인지
분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그날이
그날이고, 그해가 그해 일 뿐입니다.
새로운 것이 없어 때론 지루한 세월,
의미없는 시간만 흘러 보낼 뿐 입니다.
샘 솟는 기쁨과 약동하는 생명을
놓치고 소중한 시간만 낭비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봅니다.

성경 사사기는 우리의 존재를
정확하게 짚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알량한 아집, 고집, 소견을 내 세우고,
자기가 자신을 통치하는 왕(ego)이
되어 살아 왔던 ‘옛 모습’을 버리지
않는한, 우리 모두는 너나 할것없이
자기 노력만 으로는, 새로운 존재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권력, 돈, 성공, 뛰어난 미모, 명성,
자존심, 자아, 명분, 소유 등등 ---
---이와같은 것들을 하나님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 자리를 점령하게
되어, 우리의 허약한 마음은 어느새
각종 우상들로 우굴 우굴한 우상
집합소 같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탄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의 지휘를
받느라 현대인들은 바쁘게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할 일, 못 할 일 분별을
못하게 되고 맙니다.

이런 피곤한 삶은 생각 보다 훨씬
더 위험 합니다. 가짜 신들, 즉
우상들의 결국은 우리를 허무, 허탈로
이끌뿐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
(understanding)는, 새해가 밝았으나
아무 감격도, 감동도 없이 조금도
새로워 지지 못하는 이유 입니다.
‘내 인생의 선장은 나 다!’라고 장담

하다가 부질없이 무익한 수고만으로,
결국에는 후회하는 인생으로 끝을
맺게 되기 때문 입니다. 참 딱하고
안타깝습니다.

자신이 부모나 가족들을 선택한 것
아니요, 자신의 내적 유전적 재능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외모 까지도 자기가 결정한
것 아닙니다. 그를 둘러 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 그가 속한 나라와 민족은
말할 것도 없고, 그가 처한 시대 까지
이르러 그 자신이 선택하거나 창조한
것은 하나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알량한 소견이나, 타락한
이성에 맞추어 자기의 삶을 이리 저리
주장 하려 하는 것은 슬픈 과욕일
뿐입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New York 거주
아시안중 한인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다급한 심정입니다.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습니다.

죽을만큼 힘들어도 우리는 우리자신을
마음대로 제재하거나 결정해 버릴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에게
묻고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가 말씀하실수 있도록
그 앞에 계십시오. 그가 친히 정리해
주실겁니다. 이제 우리는 무척 쉽게만
보였던 우리 자신을 re(다시) spect(
보다)하여야 할 때 입니다.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있느냐 찾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을 부르시고 찾고 계십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시려는지, 무슨 일을 맡기시려는지... 우리는 그분의 신비한 계획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무용지물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설정한 어설픈 기준이나 목표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제한할 수도, 해서도 안됩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족한 종이 24살 한참 뜨거운 피가 팔팔 온몸을 달릴때, 참으로 이겨내기 힘든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괴로움으로 핏줄이 터질듯해 하는 아들을 보고 계시던 저의 어머니께서 '애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분께서 너를 다른일에 쓰시려나 보다' 하셨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하실수 없으셨던 말씀이었지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였던지 그 후로는 때마다 하나님의 심중을 먼저 살펴 살게 되니 뼈격이던 삶이 수월해지고 넉넉해 지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상황을 해석하는 힘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항상 성공해야 한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옳아야 한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나는 길이다' 하셨으니 그 길로 따라 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어떤 크고 작은 형태의 여러가지 실패나 성공에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message)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에게 주시는 마땅한 메시지가 있고, 또 실패한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애써 찾고 따라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 는 분명 실패나 성공을 무론하고 누구에게나 주시는

명령입니다. 오직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지고의 길임을 가르쳐 주시는 '명령' 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하여 말씀 하십니다. 그의 관심이 더 많은 재물에만 있던 것을 보시고 어리석다 하셨습니다. 사울과 골리앗은 하나님 없는 거대주의(Gigantism)를 우상으로 받들다가 멸망 하였었지요. 그러나 다윗과 사무엘은 아무리 작은 것 같이 보이나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 계시면 소중하고 귀중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한날 양치기 소년에 불과 했던 다윗의 가슴 속에 있던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세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나 우리가 누구인지를 천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르기를 그 이름은 기묘자라(Wonderful) 모사라(Counseller) 전능하신 하나님이라(The mighty God), 영존하시는 아버지라(The everlasting Father), 평강의 왕(The Prince of Peace) 이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 왕중의 왕 이신 그 분께 속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에 이르기를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뻗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사48: 13)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왕족입니다. 왕족이라는 것 — 신분에 맞는 품위가 담긴 삶의 태도가 몸에 아주 배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왕실에 중전이 되면 그에 걸맞는 법도와 품위가 삶에서 늘 풍기어 나와야 그 권위가 서듯 말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십니까? 크게 보여야 건강한 상태입니다. 내가, 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면 야단납니다. 위험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또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고단한 삶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이란 생명의 주인되신 그와 함께 한 역사이어야 합니다. 비록 때로 흔들리고 고단했을지라도 그와 함께 엮음에 감격하게 됩니다. 만일으로도 다 감사 못 할 은혜입니다.

이제 2022년! 두 손들고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새 술은 새 푸대에!' 깃발과 함께 과연 믿음으로 영육이 다 건강하여 모두 당당한 왕족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왕족입니다!

Happy New Year!



Acupuncture & Herbs Pain Clinic
Holistic & Alternative Medicine

장상순 한의원
Dr Sangsoon Chang
DOM, DSOM, Dipl OM, Dipl Ch, Lac

2617 Juan Tabo NE #B
Albuquerque
New Mexico 87112
www.drchang505.com

505-255-0878
505-710-7504
sangsoonc@gmail.com

보험회사 Authorized Providers:
Cigna, Presbyterian, Multiplan, Optum,
United healthcare, New mexico health
connection, Out of net work, Molina.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김민순
갈릴리 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현 작가의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2019년 5월에 처음 출간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2020년 1월에 너나들이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너나들이는 서로 터놓고 지내는 사이라는 순우리말입니다. 광야같은 우리 지역에서 너나들이, 서로 터놓고 지내는 사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너나들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소중한 제자 디모데가 있습니다. AD 67년 순교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스승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인생의 소중한 세 가지인 사람, 책, 그리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새로운 2022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의 소중한 세 가지인 사람과 책과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젊은 사역자 디모데가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람입니다.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올 것인가? 이 땅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소중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도 사람입니다. 교회도 사람이며, 목회도 결국 사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사람들을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같은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우리 이웃, 우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는 고마운 사람들은 더 소중히 여기고, 유익한 사람들에게 더 감사하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은 더 용서하고, 안타깝고 서운하고 원수같은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은 가족 종이에 쓴 책입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겹옷도 필요했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가족 종이에 쓴 책입니다. 양피지 가족 종이에 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니 사도 바울은 그동안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전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새기며 가까이 보길 원합니다. 젊은 사역자 디모데가 힘든 사역을 감당하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읽은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로 오묘하고 파고 파도 끝이 없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아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오늘도 하나님은 그 소중한 책을 통해서 우리의 모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감동시키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해주시고 의로 교육해서 지금보다 더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디모데가 끝까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스승 사도 바울에게 끝까지 견딜 힘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우리 주님이십니다. 로마 감옥의 좁고 외롭고 쓸쓸한 바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의 대상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연약한 바울 곁에 친히 서서 힘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삶의 위기와 죽음의 고비마다 바울과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곁에 서 주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제 순교의 죽음을 눈 앞에 두고 있는 바울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이십니다. 부족한 바울의 삶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2021년 한 해가 지나갔고, 새로운 2022년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사시는지요? 무엇을 의지하시면 사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선물로 주신 소중한 세 가지,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은 더 소중히 여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은 더욱 가까이 하고, 우리 곁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합시다.

수필/목회칼럼



‘오미크론(Omicron)’ 을 이기는 ‘옵니 크라운(Omni Crown)’



이창민

LA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이제는 일상이 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확산한 지도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백신이 개발되어 많은 사람이 접종을 마쳤지만, 코로나바이러스는 세상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이유는 바이러스가 계속 변하면서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언론과 학계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변이가 발견된 지역의 이름을 따서 ‘영국발 변이’,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 ‘인도발 변이’라는 식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그 나라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로 얼마 전부터는 그리스 알파벳을 순서대로 붙여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시작하는 그리스 알파벳 순으로 코로나바이러스 변이의 이름을 붙이면서 이 중에서 강력한 전파력과 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는 변이를 ‘우려 변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10여 개의 변이 바이러스 중 우려 변이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우려 변이가 지난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되었고, 그 이름을 ‘오미크론’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 중 13번째이기에 그리스 알파벳 순으로 보면 ‘뮤(μ)’라는 이름으로 불러야 하지만, 그리스 알파벳의 13번째와 14번째인 ‘뮤(μ)’와 ‘크시(ξ)’를 건너뛰고 15번째인

‘오미크론(Omicron)’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스 알파벳에서 ‘오(O)’를 나타내는 글자가 둘입니다. 작은 ‘오’라는 뜻의 ‘오미크론(O)’이 15번째 알파벳이고, 큰 ‘오’라는 뜻의 ‘오메가(Ω)’가 그리스 알파벳의 마지막 24번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그리스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인 알파와 오메가를 늘어놓아 ‘처음과 마지막’, 즉 ‘영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수십 개 나라에서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근의 아프리카 국가로부터의 입국을 막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비롯한 코로나바이러스는 좀처럼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과 방역 완화를 통해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다고 하면서 일상 회복을 바라고 있지만, 여전히 위협 속에서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지친 사람들의 인내심도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낯선 이름이 익숙해질 때쯤, 제 머릿속에는 오미크론을 이길 수 있는 비슷한 말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옵니 크라운(Omni Crown)’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옵니(Omni)’라는 말은 ‘모든’, ‘

어디서나’, ‘언제나’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입니다. ‘옵니’라는 말을 써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옵니포텐트(Omnipotent)’라고 부릅니다. ‘크라운(Crown)’이라는 말은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관이나, 승리를 상징하며 머리에 쓰는 관을 뜻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쓰셨던 가시 면류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찢절매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 기술을 자랑하고 문명을 내세워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쉽게 멈출 수는 없어 보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면류관(Omni Crown)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대하 7:13-14) ‘오미크론’을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가 쓰신 면류관, 즉 ‘옵니 크라운’뿐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맞이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과학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인류는 사회를 물질적 및 조직적으로 발전시켜 자연 그대로의 원시적 생활 대신 세련된 삶의 양태를 이룩했다.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의 생활은 과학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문명한 사회는 물질적 및 문화적 수준이 높은 사회다. 문명은 물질적 □ 기술적인 것으로, 문화는 정신적 □ 지적인 것으로 규정되기도 하지만 양자가 엄밀하게 구별되지는 않는다.

과학은 보편적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적 지식으로, 그 대상 영역에 따라 자연 과학과 사회 과학으로 분류된다. 거기에 과학은 또 수학과 논리학을 포함시킨 형식 과학과 철학을 포함시킨 인문 과학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과학’은 흔히 자연 과학만을 이르는 말로 쓰여, 과학자는 곧 자연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표준이 확립된 과학적 방법은 문제를 끝까지 살피고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가설을 세운 다음 그 가설을 사실에 근거하여 확인하는 고도로 훈련된 일련의 연구 방법이다.

언제부턴가 미국 사회에 과학을 불신하는 풍조가 만연되었다. 불신의 정도를 넘어 반감을 가진 사람도 많다. 우리는 이미 그 예를 기후 변화, 총기 규제, 예방약의 안전성 등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총의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았다. 그런 감정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 위기 때도 그것이 음모라거나 속임수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공중 위생 분야의 관리들을 악의적으로 비난했다.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하는 상점의 주인이나 시의원들에게 악다구니를 퍼붓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디오를 통하여 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비단 미국에서만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오보, 역정보, 음모 따위의 전혀 근거 없는 잘못된 개념이 지구촌 전체를 휩쓸기도 했다.

역병과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건전한 판단력과 식견을 갖추는 것임을 역사가 증명하는데,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 특히 선출된 사람들이 실망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어떤 상원 의원 하나는 ‘의사들이 돈을 벌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를 부풀리고 있다.’고 말한다. 멀쩡한 젊은 녀석이 ‘코로나 사태는 거짓이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는 모자를 쓰고 거리를 활보한다.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병이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조금 심한 독감이나 폐렴일 뿐이네, 머지 않아 사라질 것이네, 걱정하지 않아도 되네 하면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나돌아 다니다가 자신이 감염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입원 환자가 되어 치료 받고 나와서도 별것 아니더라고 하면서, 바이러스가 곧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따른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나는 모르겠다. 현대인의 정신 능력이 먼 옛날 동굴에서 나와 달을 보고 돌을 던지던 원시인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이 옳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맞이한 21세기는 초기에 악성 유행병의 세기가 되었다. 2003년의 SARS에 이어 2009년의 H1N1 influenza (돼지 플루), 2012년의 MERS, 2014~16년의 Ebola, 그리고 2020년의 COVID-19까지 20년 동안에 자그마치 다섯 번의 역병이 발생했다. 각각이 전의 것보다 더 고약했으며, 코로나바이러스 질병은 앞의 네 가지를 합한 것보다 몇 배나 더 고약했다. 아직 수십 년이 남았는데, 또 어떤 질병이 나타나 사람을 괴롭힐지는 아무도 모른다.

코로나바이러스 질병의 발생 초기에 의료 기관의 관리들이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그러나 시행착오는 학습 방법의 하나 아니던가. 전문가들은 전에 없이 서로 협력하여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예방약을 만들어 냈다. 지금까지 가장 단기간에 만들어진 예방약이 3년 걸렸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들이 이번의 예방약을 제조하는 데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가를 엿볼 수 있다.

과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20페이지로 계속>

수필

참 잘 했다!



나정자
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사모
/ 수필가

며칠전, 코로나 팬데믹후 참으로 오랫동안 가까이 계신 목사님 내외분들과 아이홉에서 아침을 함께 하는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이런저런 얘기중 한 사모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80이 넘도록 평생에 ‘참 잘 했다’ 하는 게 두가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 한 가지는 ‘이 목사 남편과 결혼한 것이고, 또 한가지는 5남매를 키우신 아버지께서 재산을 똑같이 5등분하여 나누어 주셨는데, 그 중 장녀이셨던 이 사모님께서서는 어렵사리 사업하느라 가장 빠듯하게 지내는 동생에게로 씌직한 집한채 살 만큼 패되는 자기몫을 통채로 주어서 숨통을 돌리게 했었던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내 머리 속이 남몰래 엄청 바쁘게 돌아갑니다. 내게 있어서도 무엇이 ‘참 잘 했다’ 할 만한 게 있는 것일까? 뜬금없이 과연 너는? 이란 질문이 마치 어서 숨은그림을 찾아 내보라는듯 재촉하는것 이었습니다.

살아 온 얘기들이야 그동안 먹어 온 밥그릇 수 만큼이나 많고 김니다. 그러나 그중에 스스로에게 격려가 될 만한, ‘참 잘 했다’ 로 추억할 수 있는 나만의 얘기가 있었던가? 과연 몇번이나 있었던 것일까? 뭘 뛰어나게 잘 하는게 없어 늘 기죽어 자책하다가도 그래도 때로 ‘그래도 잘 했다’ 정도로라도 치부될만한 것이 있었던가?...다급한 마음으로 아직도 덜 삭은 세월을 점검해 보자니 앗싸! 웬 사연들이 그리 많았던 것인지

봄비맞은 쑥뿌리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한 해를 마무리 해야 하는 분망한 이 세모에 때아닌 ‘그래도 잘 했다’ 찾기가 시작됩니다. 저 높은 북아현동 산꼭대기— 구름도 쉬어간다는 산동네에서 세상물정 모르는 철부지 새댁시절로 부터 해서 한바탕의 짝지않은 작업이었지요. 학교도 늦게, 군복무도 해병대, 공군을 섭렵 제대하느라 세상엔 느지막 하게 등장한 내 남편. 그럴지라도 그럴싸하게 대기업에 스카웃되었을땐 새댁의 코가 하늘로 뚫리기 시작했었지요. 그러나 겨우 그 숨쉬기를 익혀 가는 중이었건만, 멀쩡한 자리를 마다하고 낮에는 코홀리개들 고아원 뒷바라지로, 밤이면 통부러진 식구들 섬기느라 종로에 있는 대입 학원 강사로 뛰는 남편만 바라보던 주변이니 계산에 없던 숨가쁜 생활을 하던 때 었습니다. 은평천사원(고아원)에 헌신하겠다고 나서니 원걸 그림같은 집 한 채가 덜커덩 생겼습니다. 돌아보니 헌신을 결단하는 자를 챙기시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통찰이셨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 집 주인은 역촌동에서 한참이나 먼 장위동에 운동장 만한 자동차 수리 학원을 세웠기에 하루 빨리 이사를 가야하는 형편.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그저 단출한 셋 방 하나 얻으려던 우리에게 자기이름으로 은행대출을 받아 줄터이니 아무 염려 말고 무조건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는 세상인데, 무슨 이런 홍길동같은 일이람!?

그렇게 되어 3년 할부로 사게 된 이 집에 6명의 청년들이 들어섭니다. 이들은 6.25 전쟁고아들로 은평천사원 1기 형님뻘 되는 이들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8세 이상되면 고아원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있었지만 이들이 따로 독립해 나가 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기에 그냥 원에 눌러 내 배재라 버티고 살수 밖에 없는 것이었지요. 뿐 아니라 사회에 직장을 잡을래도 재정보증 이나 신원보증이 되어야 되게 되어있어 고아원 출신이 직장을 잡는다는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을 때 었습니다.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그들중 하나가 시내버쓰 운전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결론은 재정보증을 위해서 이 집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주어야 되겠다는 것 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재정보증을 서 주겠느냐? 누가 우리를 제대로 보아 주겠느냐!? 누가 우리 뒤에 서 주겠느냐? 우리를 알 만한 사람이 세상천지에 누가 있느냐? 그 ‘누가?’ 를 찾아서 예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우리집에 늘 오는 사람들도 아닌데...하면서 잠깐이지만 열떨떨하고 황당한 마음으로 점심상을 차리는 중인데, 아뽤썩! 이것은 마땅한 일이지 않은가? 내가 지금 무얼 주저하고 있는거지? 로 마음이 홀러덩 바뀌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웬 이럴수가! 그때는 잘 몰랐지만 후에

생각하니 결자해지 —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싶습니다.

울렁이는 가슴없이 정체불명의 생물일 뿐이라던가요. 저들에게 재정보증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주면 저가 자립하여 살 길이 열리겠구나 하는 마음뿐. 다른 생각할 여지도 없이 오래 지체하지 못하고 곧바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그것들을 내 주었던 일단의 ‘사건!’

그들을 가슴으로 만날 수 있도록 미리 그 예쁜 집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준비시켜 놓으신 하나님! 눈 밝고 귀 밝으셔서 스스로 살아계심을 밝히셨던 하나님! 핏줄 잃고 고향 잃은 이들의 막막한 분노와 좌절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후 그 인감도장은 다른 데 도용되지도 않았고, 그는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되었으며 얼마 간 후에 그것들은 다시 내게로 무사히 돌아왔던 것 이었죠. 평생을 두고 ‘참 잘 했다’ 로 기억될 수 있는 것은 분명 내 가장 귀한 것으로 그 값을 치루어야 하는가 봅니다.

년전 영국 BBC 광고가 생각납니다. 유명한 남극 탐험가 어네스트 샤클톤 경의 ‘사람 구함’ 광고였습니다.

“위험한 행로에서 함께 일할 사람구함”

- 임금 박봉
- 심한 추위
- 장기간의 완전 흑암
- 위험천만의 안정
- 무사 귀국 의문

이었던 만, 이런 험한 조건에도 엄청 많은 사람들의 청원이 놀랄만큼 넘치게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하게 시사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분의 부르심이 이미 진하게 새겨져 기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만을 위해서, 죽을 틈도 없이 투쟁하는 것 같아도 그 깊은 속에는 가장 귀한 일에 가장 귀한 자신을

아끼지 않겠다는 심지가 여전히 숨쉬고 있다는 표징이었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절대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이미 스스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부인하지 못 하는 게 우리들의 본 마음이지 싶습니다. 살면서 배웁니다. 성경이 올곧게 들릴 때는 나의 무지 곧 뽕족하고 모나고 서툰 모습을 발견하고 어떤 때는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뿐 아니라 또 살아오는 동안 내 발목을 잡고 나를 멈추게 하던 것들... 돌아보니 그런 것들 모두가 다 나로 어쭙잖게 춤병대지 못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감격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내게 가장 귀한 것, 감사와 기쁨이 무엇인가를 분별케 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개인적으로는 이제 겨우 출애급의 분기점에 와 있는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오늘은 칠푼이 같은 나 자신을 ‘그래도 잘 했다’ 로 응원하며, 어느 특별한 날을 위하여 꼭꼭 싸 두었던 고운 다홍치마를 꺼내 입습니다. 헐레벌떡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똑같은 봉어빵 일과 속에서 찾아볼 겨를조차 없었던 것,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참 잘 했다’ 를 일년에 한번쯤은 더듬어 보며 심기일전 해 볼 만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특별한 날! 여전히 은퇴 노인 아파트 한 칸 방을 빌려 살지라도 나로 부자처럼 살게 하는 그것! 그 잊혀진 비밀을 찾아 낸 날! 다소곳이 손을 모으고 메카 — 하나님의 성을 바라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내 평생에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시119:56)’ 로 내 삶을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드리며, 옷 깃을 여뵙니다.

건강하고 평화로운 새해되기를 기원하면서.

<과학>

18페이지에서 계속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다. 때로는 과학적인 성과가 엉뚱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인류의 이익에 보탬이 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 과학이다. 과학의 철학은 무지의 벽을 허무는 데에 있다. 의학은 과학상의 진리를 개개의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이고, 공중 위생은 과학상의 진리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과학적인 발명이 인류의 번성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인식했다.

최근에 실시된 과학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 조사의 결과를 보면 일반 대중의 인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예상과는 달리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 비하여 2020년 4.5월에 과학자들을 신뢰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던 것이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과학에 대한 정치적 또는 인종적 선호도는 우려할 수준이다. 당파에 따라 선호도에 큰 차이를 보이며, 흑인들의 선호도가 백인들의 그것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았다.

뻔한 현실의 타당성도 아랑곳없이 인류의 미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중대 사건을 그저 의심하려 드는 사람들이 많아서 탈이다. 그들은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전쟁에서 의료진들이 어떤 발전을 거두어도 인정하기를 싫어한다. 예방 주사를 맞는 것도 꺼려한다. 그런 회의론자들이 팬데믹의 대응 방법이나 예방 주사를 거부하면,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는 과학의 능력이 무력하게 되어 사회가 이전으로 돌아가는 시기를 한없이 늦추지 않을까 걱정이다.

건강/의학

뇌졸중 (Stroke, 腦卒中) 치료제 개발 현황과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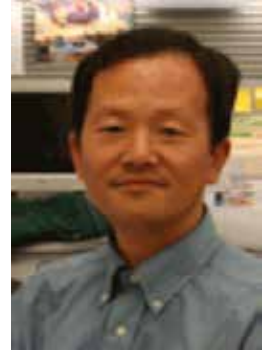
최성원

Pharmacologist

Department of Neurology

University of New Mexico Health Science Center

(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수



겨울이 되었습니다. 활기찬 일상생활, 균형 있는 식생활로 개인 건강에 유의하시어 안전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사망 원인의 하나인 뇌혈관질환 (뇌졸중, stroke)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데, 2018년 관련 논문을 보면 성인 4명 중 1명에게서 발병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의 증상이나 예방 법을 관심있어 하십니다. 자세한 안내 글은 인터넷에 보시면 많은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들이 관련 자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뇌졸중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기본 의학 지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용한 여러 수치는 일반인들께서 쉽게 이해하시도록 평균치를 인용한 것으로서 실제로는 남녀노소 개인별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 용어는 한글, 영어 이외에도 한자도 표기하였습니다. 한자를 이해하시면 의학 전문용어가 뜻하는 바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 혈관의 생리학적 生理學的 특징

뇌가 정상기능을 하려면 산소와 포도당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뇌가 소모하는 혈액량은 분당 700 ml로서 심장 박출량의 1/5입니다. 혈관을 통한 혈액의 흐름에 관하여는 유량, 속도, 전도도, 저항 등을 정의하는 많은 수식들이 있는데 이는 유체역학 및

혈 관

$$\text{혈류량} = \frac{\text{혈압} \cdot \pi \cdot \text{혈관반경}^4}{\text{길이} \cdot \text{점성도}}$$

전기공학에서 사용하는 수식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단위 시간에 흐르는 혈액 양을 뜻하는 혈류량은 위 그림의 수식과 같이 정의합니다. 혈압, 혈관의 반지름에 비례하나 혈관 길이와 혈관 점성도에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혈액의 점성도가 증가하는 경우 혈류량은 감소합니다.

2. 분류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혈관의 폐쇄 현상에 의한 허혈성 뇌졸중과 파열에 의한 출혈성 뇌졸중입니다. 허혈성 뇌졸중이 전체 뇌졸중의 80%를 차지합니다. 발병 원인, 손상 형태, 정도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합니다. 뇌졸중의 증상 및 예후는 발병 위치, 범위에 따라 다양하며 치료법도 다릅니다. 특히, 발병 초기 치료를 잘하기 위해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운동/감각 마비, 의식장애, 실어증, 구토, 두통, 의식장애를 보이는 경우 뇌졸중 증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허혈성 뇌졸중 Ischemic cerebrovascular disease 虛血性 腦卒中〉		
뇌혈전증 腦血栓症 cerebral thrombosis	cerebral	두개강 내 혈관에서 생긴 혈전이 유발
뇌색전증 腦塞栓症 Cerebral embolism		심장에서 발생한 혈전이 이동, 뇌동맥을 막음
열공성 뇌졸중 熱共性 腦卒中 Lacunar stroke		직경 1.5cm 미만의 작은 손상
일과성 허혈발작 一過性 虛血發作 Transient ischemic attack		허혈 현상이 24 시간 내에 소멸되는 경우
〈출혈성 뇌졸중 Hemorrhagic cerebrovascular disease 出血性 腦卒中〉		
뇌실질내 출혈 腦室質內 出血 intracerebral hemorrhage		고혈압 환자, 탄력 약한 혈관에서 출혈
뇌지주막하 출혈 腦支柱膜下 出血 subarachnoid hemorrhage		기존의 손상되어 있던 혈관벽이 갑작스런 혈압 상승으로 인해 출혈

3. 치료제 개발 현황

기존 약물은 혈류를 원활히 하게끔 하는 방법으로서 혈액의 응고를 방지, 혈관세포 및 신경세포에 손상 주는 물질의 흐름을 차단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2016 ~ 2020년 5년 사이에 임상실험을 마친 후보 약물군을 보면 발병 초기일지라도 더 이상의 세포 손상이 인근 부위로 퍼지지 않도록 차단, 예방하는 데에 개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사하는 중요한 점은 사전 예방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뇌졸중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운동, 활기 있는 생활 그리고 식단 조절로 몸의 각 기관을 건강하게 만들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4. 예방을 위한 영양섭취

혈관세포, 신경세포를 포함한 모든 세포는 지질, 단백질, 핵산 등을 기본으로 한 고분자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 물질들은 탄소, 질소, 산소, 수소, 인, 황, 칼륨, 마그네슘

약물	작용 메카니즘
〈현재 사용 중인 약물〉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전용해제, 칼슘 작용 억제제, 활성산소 억제제 흥분성 신경전달물질 조절	혈액 응고 방지 혈액 흐름 촉진 세포 손상 차단
〈2016-2020년 사이에 임상시험 완료된 약물〉	
Urinary kallidinogenase	산화 및 염증억제
Statins	산화 및 염증 억제, 세포 손상 억제
Edaravone	산화 억제
NA-1	흥분성 신경전달물질 방출 억제
3K3A-APC	염증 억제
GM602	산화, 염증, 신경세포 괴사 억제
Natalizumab	염증 억제
Vinpocetine	혈관확장, 산화 억제, 염증 억제

*Review article: Emerging neuroprotective strategies for the treatment of ischemic stroke: An overview of clinical and preclinical studies. Paul S, Candelario-Jalil E. Exp Neurol. 2021 335:113518.

등의 원소 및 기타 적은 양의 원소 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록 미량이지만 각 원소들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는 각 원소들이 생명 유지, 건강 유지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고로, 특정 성분만을 과하게 섭취하시면 몸에 독이 됩니다.

아무리 치료약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뇌졸중의 특성을 생각하신다면 평소 쉬운 일부부터 시작하시어 예방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개인별 건강상의 유의점을 유념하시고 활기차게 생활하시며 식단을 균형 있게 조절하셔서 이번 겨울도 건강하게 지내시게 바랍니다.

구분	주요 특징
세포 구성 분자	지질: 세포막 및 세포내 소기관 막 형성, 불포화지방산이 중요. 단백질: 세포 골격, 신호 전달 등 기능 (효소) 핵산: 유전 물질 탄수화물(포도당): 에너지원 비타민 : 주요 단백질의 보조 인자
세포 구성 원소	-탄소,수소,산소 : 구성 분자의 기본 골격 -질소: 단백질, 핵산의 합성에 필요 -인 : 핵산 합성에 필요 -황: 단백질이나 일부 효소 생성에 필요 -칼륨: 일부효소의 보조인자 -철: 일부 효소의 보조인자 -마그네슘: 일부 효소의 보조인자 -코발트: 일부 비타민 합성에 필요 -구리: 에너지 생산, 중추신경계, 근골격계, 혈액 구성에 필요
필요 음식물	-칼륨, 비타민, - 고구마, 감자, 바나나, 토마토, 자두, 메론, 콩 -불포화지방산 - 연어, 참치, 고등어 -탄수화물, 비타민, 마그네슘, 철분 - 곡물류 -단백질, 칼슘, 아연, 인, 비타민 - 우유, 요거트, 치즈

영어상식 시리즈

영어이야기 18

Home is where the Heart is.



이상목

전자공학 은퇴 교수
아마추어무선사

2022년 호랑이해를 맞아 가정에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차길 바랍니다. 가족과 편안히 쉴수있는 공간인 집이 있다는것은 우리가 누리는 축복중의 하나입니다. “집보다 편안한곳은 없다(There’s no place like home.)”란 말은 세계공통어인것 같습니다. 또한 “Home is where the heart is.”처럼 집이란 사랑과 따뜻함이 스며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누추해도 두다리 뻗고 편안히 누울수 있는곳은 자기집외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집이라함은 가족이 있는 집이나 자기가 지금 살고있는 정든 집, 다시말하면 익숙한 집을 뜻합니다. 집에 온 손님에게 편히 앉으세요의 의미로 ‘Make yourself at home’ 이라고 합니다. 스페인어로도 “Mi casa su casa”라고 하는데, “My house is your house.”의 뜻이니 자기집이 편안한것은 동서를 막론하고 같습니다. “Mi casa su casa”는 문법적으로 동사가 필요해 “Mi casa es su casa”가 맞지만 보통 “Mi casa su casa”라고 합니다. 이말은 미국내에서도 많이 통용되는, 어떻게보면 미국화된 Spanish라고 할수 있습니다. 손님이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할때도 “Mi casa su casa”하면 쭈뼛은 표현이 됩니다. 영화로도 나왔던 Morocco의 도시 “Casablanca”(카사블랑카)는 white house란 뜻입니다. Casablanca의 원래이름은 Anfa 입니다. 우리가 사는 New Mexico

의 음식점이름에 Casa가 붙은이름이 많은데 집(house)이란 뜻입니다. Pueblo는 마을을 뜻합니다. 집을 뜻하는 단어로 우리는 Home 이나 House를 사용합니다. House는 건물 자체를 뜻하고, Home은 집에서사는 가족이나 가정을 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백악관은 the White House이지 the White Home이 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집을 샀을때는 new house나 new home으로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Home이 House보다 정겨운 정감을 줍니다. Home Depot도 건물자재를 파는곳이지만 친근함을 주기위해 House Depot가 아닌 Home Depot로 하지않았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Home”이란 말이 “House”보다 우리가 사는곳을 좀더 친근히 가슴에 다가오게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Home”을 사용하느냐 “House”를 사용하느냐를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home address (집주소)는 지금 살고있는 현주소(current address)를 주로 뜻합니다. 미국에 유학온 학생이 학교서류의 permanent address란에 한국식으로 본적으로 생각하여 한국본적주소를 기입하면, 학교성적표가 한국으로 배달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집을떠나 임시로 기숙사나 아파트에서 지내기 때문에 확실한 주소(대개 부모님의 주소)가 필요하기에 묻는것입니다.

Current는 흐름, 흘러가는것을 뜻하기 때문에 흘러가는 강물은, 현물은 내려가고 항상 새로운물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current에는 현재라는 뜻이 있어 current price는 현재시가를 말합니다. 전기도 흐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류를 electric current 또는 그냥 current라 말합니다. 돈도 이사람 손에서 저사람 손으로 흘러가는것이므로 화폐, 통화의 뜻으로 currency가 사용됩니다. Home이 사용되는 경우를 더 보면, home delivery (집으로 배달), home ownership (집소유권), home improvement (집개량 또는 개선), home team (연고지 팀), hometown (고향, 주된 거주지), home cooking (집에서 하는 요리), homemade cookies (집에서만든 과자), home phone number (집전화번호), nursing home, a home computer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homepage, a happy home, children from a broken home (결손가정 아이들)을 들수있고, house를 사용한 예로는 housekeeper (집안청소, 빨래, 요리등을 하는 사람), housing policy (주택정책), house wife 또는 stay-at-home mom (전업주부), coffee house, beach house, abandoned house (방치되고 버려진 집), cleaning house, adobe house (어도비 하우스; 스페인어 발음은 아도베)를 들수있는데, adobe는 New Mexico

에서 많이 볼수있는 지붕이 평편한 집의 형태로 우리주위에서 흔히 볼수있습니다. 갈색이 파란하늘과 잘어울리는 집입니다. Adobe는



pdf file 컴퓨터 software를 개발한 회사이름으로도 우리에게 익숙한데, pdf는 Portable Document Format의 약자로 Windows나 Mac등 어느 platform에서나 볼수있고 열수있는 format입니다. WORD로 저장된 file을 크기가 훨씬적은 pdf file로 쉽게 바꿀수 있습니다. open house (realtor가 집을 개방하여 집을 사려는 구매자들에게 보여주는 일정기간), a single-family house (단독주택). 여러날 집을 비울경우 집을 봐주는 사람이 필요할때가 있는데, 어린이를 돌보는것을 babysit이라 하듯이 집을 봐주는것을 house-sit or housesit이라고 합니다. "sit"에 아이를 돌보다의 뜻이 있기때문입니다. 아마 앉아서 돌보기에 그런뜻도 가미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I'm sitting (babysitting) my sister's kids this weekend. (이번 주말엔 언니네 아이를 돌봐주기로 되어있어.) 그래서 개나 고양이등을 봐주는 사람을 pet sitter, 돌봐주는것은 pet-sitting, dog-sitting, cat-sitting이라고하면 되고, 화초를 돌보는것도 "babysit house plants"로 표현할수 있습니다. "Muffie had been dog-sitting for me." (Muffie는 내 애완견을 봐주곤 했었다.) 아이들은 장시간 앉아있지 못합니다. 꼼지락

거립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Children can't sit still for long without fidgeting." 운전하지않고 차고에 몇달씩 박혀있는 자동차의 상황도 앉아있는 sit의 경우가 됩니다. "If your car sits unused too long, it can go wrong." (자동차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고장날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배터리가 바닥이 나거나, 타이어 바람도 나가고(Tires can go flat.), fuel pump도 부러질수있고, 쥐같은 동물의 서식처가 될 위험도 있습니다. "Australia is the home of the kangaroo." "She is beginning to feel at home in her new job." (그녀는 새직장생활에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the monkey house at the zoo" (동물원의 원숭이집), "Opera House",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법을 만드는 기관인 국회의 하원), "on the house" (음식이나 술을 공짜로 주는것). You all drink on me. (여러분, 술은 제가 살 겁니다). Household는 가족, 세대라는 뜻으로, 한집에 두 세대가 살면 two households라고 말할수 있으며, Head of household (또는 household head)는 세대주로서, Rio Rancho의 경우, 재산세(property tax) 부과시 과세평가액 (assessment)에서 \$2,000을 감해줍니다. 개인소지품을 personal effects라 하듯이 집에 있는 가재도구를 household effects라고 합니다.

"home"은 house와 달리 부사로도 쓰입니다. "Call me at home after six o'clock. "이나 "I think she is at home."은 home앞에 전치사 at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He's home."하면, 그는 (지금) 집에 도착해서 집에 있다는 뜻이 있는 반면, "He's at home."은 누가

그의 행방을 물었을때 "그사람 집에 있어." 라고 대답할때 사용하듯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집에 있을때 나는 주로 책을 읽고지낸다"라고 할때에, stay home이 아니라 "When I stay at home, I like reading."이 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I'll be home soon." (집에 곧 도착할꺼야) 또한, 움직이는 동사 get, go, come, arrive, travel, drive등과 사용할때엔 home이 부사로 사용되므로 전치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I'm going home now. I'm really tired." (몸씨피곤해서 집에가려고 한다). "I'm going to home."이 아닙니다. "Would you like me to drive you home?" (집에 데려다 드릴까요?) "Honey, I'm home." (여보 나 집에왔어) "Wear it home if there is no room in your baggage." (그옷 가방에 찔수있는 여유가 없으면 집에 입고가세요). He always walked her home. (그는 그녀를 항상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I arrived at the airport two hours before flight."에서는 전치사 at이 붙지만, "I arrived home."은 어감상 조금 이상하지만 원칙적으로 at이 붙지않습니다. "He takes home \$2000 per month." (그는 한달에 \$2000을 벌니다). "take-home test" (집에서 치루는 시험), "in-home care for the disabled" (불구자를 위한 집에서의 돌봄). "at-home business" (집에 사무실이 있어 일하는), "I was born in Korea, but I've lived in America for so long that it feels like home now."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 오래살아 이곳이 집(고향)처럼 더 편해요). "I hope you made it home safely last night." (어젯밤 무사히 집에 돌아가셨길 바랍니다). Happy New Year!

수필

울림, 무중력의 순간

이지수
성악가
오페라가수

사람들이 가끔 내게 묻는다, “무대 위에서 공연 할때 무슨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때부터 나는 천천히 되돌아 보기 시작 했다.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나의 과거가 마치 영화 “Matrix” 에서 순간적으로 다른 세상에 들어가듯이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오기 시작 했다.

내 머리 속에 비춰지는 과거의 무대경험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듯 보다 보니, 한가지 몰랐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전에는 그저 하나님이나 나를 들어 올리시고, 나는 입만 벌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거기에 한가지 중요한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 공연을 하면서 마치 Matrix 의 Slow Motion 의 한 장면처럼 다가오는 순간... 공간의 멈춤, 그리고 무중력의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울림” 이다! 1997년 처음으로 성악발성 레슨을 받을 때는 그저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내는 것 만으로 모든 소리가 완성 되는 줄만 알았는데, 가만히 그때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입을 크게 벌리는 것으로 울림을 줄 공간을 만드는 것을 배우는 과정인 것이다. “I wish my teacher told me what it was ...” 그 이후에 나는 많은 사람들로 부터 샤워중에 노래를 부르면 소리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이해가 간다. 울림이 클 수록 소리는 더 선명하고 좋다?

지금 잠깐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입을 다문채 한번 “음~” 하고 소리를 내어보자, 미세하지만 머리쪽에 약간의 울림이 느껴진다. 그리고

이번에는 “음 ~ 야” 하고 입을 점점 열어보자. 아마도 머리의 울림이 사라지며 입을 벌리는 순간 내 몸속 공간을 울리던 소리가 내가 있는 방의 공간으로 이동 하며 소리가 커지는것이 느껴진다.

그러는 동안 눈을 감고 공기의 공간 이동에 집중하면서 입의 크기를 점점 늘려가는 연습을 몇 번 하면서 턱을 더 아래로 내리는 것을 반복하자. 그러면 이번에는 머리의 울림에서 가슴쪽의 울림으로 느껴진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횡경막 바로 아래쪽까지 울린다. 이 정도의 울림까지 느끼면, 마치 나는 붕 떠 있는것 같은 무중력의 기분을 느낀다.

나는 이런 경지에 오를때가 가장 기분 좋다, 내 몸이 가벼워지고 느슨해지며, 오로지 허리에서 엉덩이만이 마치 발전기가 돌아가듯 묵직하고 단단하다. 날아갈 것 같은 기분으로 소리를 질러 높은 곳을 정복하고 나면, 호흡이 가지런해지고 마지막은 마치 비행기가 착지 하듯 조심스럽게. 이런거는 호흡조절이라고 하는데, 결국 호흡조절이라는 것이 울림의 위치와 크고 작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입을 열거나 닫고 있거나 소리를 낼 때마다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이 울리는지 조금은 예민하게 느끼는 습관을 기르면, 나에게



집중하게 된다.

음악이라는, 소리 라는 매개체는 감성을 다스리고 이렇게 울림을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부터 나의 시간도 멈추게 되는데, 아마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왜 노래를 즐겨 부르는 이들의 얼굴 표정이 밝고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지 이해가 간다. 2020년과 21년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Fear and Depression 들이 자리잡았고, 나 역시도 “혼자” 라는 상황을 벗어나고픈 간절함에 사로잡혀 힘들었던 때가 많았다. 그럴 때 라디오나 유튜브 채널을 틀어 놓고 노래를 따라 불렀고, 흥겨운 음악에 정신 없이 춤을 추어 보기도 했던 기억이 난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가는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금 우리 내면에 집중 해서 이런 울림 운동을 통해서 “소리” 라는 새로운 발견과 함께 2022년을 노래하며 시작 해 보는건 어떤지 하는 바람이다.

Warm Miracle 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Soprano 이 지 수 (Gsu Lee)

수필

Stilwell Kansas 에서 본 것 들

김준호

Fairview교회, TX
장로

저희 내외가 여기 와서 아들네와 함께 생활하면서 시내에서 떨어진 외각의 풍경을 보니까 좀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아들네 Land 는 3 acres 정도 되니까 보통 집 크기보다는 넓은 셈이지요. 집 앞마당 에는 잔디 밭과 꽃 나무들, 사철 나무들이 있고 뒤마당에는 역시 잔디 밭, 꽃 밭, 그리고 Pool 도 있고 Fire place 가 있어서 불꽃 놀이를 할 수 있더라구요. 뒷마당의 나무들은 모두 줄거리가 가늘 딱딱 한 꺾다리 나무들로 짝 차 있고 지금은 나무 잎이 다 떨어져서 겨울 나무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뒷마당에 여섯 마리의 사슴들이 평화스럽게 산책하는 것을 (?) 보며 놀랐습니다. 그 중 두 마리는 빨 이 달려 있었고 네 마리는 빨이 없는 사슴 들이 었습니다. 빨 없는 것들은 암놈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들은 먹이를 안 주어도 무엇 인가를 먹기도 하고 꺽충 꺽충 뛰면서 재롱을 부리기도 합니다. 이런것은 매 일 보는 것은 아니고 가끔 보는 것인데 나타나면 몇 마리가 왔는지를 세어 봅니다. 또 가끔 가다가 다람쥐 들이 한 나무 가지에서 다른 나무 가지로 꺽충 꺽충 뛰어 다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 산골짜에 다람쥐 야기 다람쥐 도토리 점심 가지고 소풍을 간다. 다람쥐야 다람쥐야 재주나 한번 넘으렴 , 팔딱 팔딱 팔딱--- 날도 참말 좋구나 !!! “ 우리 나라 어린이의 동요가 생각 나네요.

아들이 쉬는 날 저희들을 데리고

ARBORETUM BOTANICAL GARDEN 이라는 Park 에 가서 두 시간 정도 걸으며 여러 가지 특이한 나무들과 꽃 나무들, 잔디밭 들, 호수들, Hiking Trail 등 을 보며 즐겼습니다.정 말 멋 있는 경치들을 감상했지요. 신기한 것은 이렇게 추운 날씨에 하얀 꽃들이 만발한 것을 보며 손으로 만든 조화 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름철 꽃들이 만발 할 때 다시 한번 와서 산책을 해 볼 생각 입니다. 거동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잘 포장된 길도 있고 청년들이 재미 있게 뛰어 다닐 수 있는 곳도 있고요 호수에는 크기가 12인치쯤 되는 큼 지 막 하고 불그스레한 봉어들이 왔다 갔다 하며 놀고 있는데도 있 구요. 지금 성탄절 Decoration 을 시작 했으니까 다 끝내고 lighting up 하면 다시 방문할까 합니다. 이 Park 안에 특이한 Garden 이름들이 있는데 Our First Garden, Woodland Garden, Arboretum, Monet Garden, Xeriscape Garden, Children Discovery Garden, Miles of Trail, etc. 옛날 우리 가족들이 ABQ down town 근방에 루미나리오 로 멋지게 장식 한 것 들을 밤에 둘러 보았던 것을 기억해 보기도 했습니다.

동네 집들이 큰 land 를 가진 분들이 많아서 말들을 기르는 집들도 있고 Donkey 들 을 기 르 는 집들도 있어요. 아들네 집은 2 층 집인데 계단으로 올라 갔다 내려 갔다 할 수도 있고 우리들 처 럼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것이 좀 힘든 분들은

Elevator를 사용 할 수 가 있게 되어 있어 참으로 편합니다.

큰 손주는 벌써 대학교에 가서 3 학년이 되었고 세월이 정말 빠르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장난꾼이 말했듯이 나이가 60세면 시간이 60 miles/hr 로 가고 70 세면 70 miles/hr, 80 세면 80 miles/hr 로 간다고 신세 타령을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독자 분들 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학교에 이름이 손주 이름과 꼭 같은 학생들이 세 명 이나 있어서 ID number 을 찍어야 정확한 File 을 볼 수 있네요.

제가 한국 원자력 연구소 전자 공학 실 연구 원 일을 하면서 서울공대 와 한양공대 에 붓 파리 장사꾼 ?, 시간 강사를 했던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서울공대는 연구소 바로 옆에 있어서 갔다 왔다 하는 시간이 30 분 밖에 안 걸려서 아주 편했지요. 그러나 한양공대는 가는데 동대문에서 빠스 를 갈아 타고 가기 때문에 어떤 때는 2 시간을 소모해야 되는 때도 있었지요. 그래서 거기 갈 때는 강의 시간 두 시간 전에 연구소에서 떠나곤 했는데 한번은 한양공대에 갔더니 수강생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사무실에 가서 왜 학생들이 한 명도 없느냐고 물었더니 데모하러 들 나갔다는 것이 었습니다 . 그래도 강사가 왔었다고 sign 을 하고 돌아 왔었는데 강사료를 못 받았었어요. 사무원 왈 강의 를

COVER STORY-표지그림

화조도

김숙희

(Suki Kim)

민화 화가



못하면 강사료를 못 준데요. 좀 실망했지만 이해는 되더라구요.

우리 아들네 집의 한가지 아쉬운 것은 그 넓은 공간에 Home Theater set up 이 없어요. 더군다나 성탄절을 앞에 두고 그 감명 깊은 많은 성탄절 음악들을 듣지 못하고 그저 Cell phone 으로 만 들으려니 나도 모르게 허전해 집니다. 아마도 Academy Ridge House 에 우리들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Christmas song을 듣고 즐기었을 텐데, ----- Plano 에 와서는 아직도 Audio System Setup 을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Audio 에 열중하고 있었을 때는 Speaker cable 의 음파를 감쇠 하지 않고 Speaker 에 전달하고 또 speaker 는 음악 밴드를 Base speaker 는 그 밴드를distortion 시키지 않는 것을 찾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냈고 Turn table cartridge 도 moving coil 로 여러 번 바꾸어서 제일 좋은 것을 찾아내서 사용했었지요. 그런데 Hudson Audio 가게 에 가서 찾아낸 사실 하나는 저 보다 더 많이 Audio에 미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 중 한 분은 처음 부터 Audio Room 을 설계하고 거기에 맞도록 집을 설계해서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 집을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굴 뚝 같았는데 기회를 못 가졌었지요.

Kansas 와 Plano 는 온도 차이가 꽤 많아요. 성탄절이 눈 앞에 와 있는데 아직도 Plano 는 날씨 온도가 어떤 때는 여름 날씨 인데 Kansas 는 아침 온도가 Freezing 온도로 막 내려 갑니다. 그래서인지 Plano 집 앞에 거목들이 많은데 새파란 나무 잎들이 날 잡아 잡 수 하는 듯 굳 세 게 붙어 있어요. 그런 반면 어떤 집들은

그림을 이해한다는 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는 요즘이다.

민화에 몸 담고 있는 분들을 하나둘씩 알게 되니 그분들이 들려주는 민화의 전설 이야기도 하나둘씩 쌓여간다. 수학을 전공한 나로서는 명확하게 떨어지는 정답이 아니라 유사답이 많음에 고개 갸우뚱거리지만 기원을 알고보면 이해되지 않는것도 아니다. 중구난방으로 주장하는 것들 중 누구의 이론을 내것으로 소화해야 하는가의 문제인 것 같다. 이번에 만난 분에게서는 낙관의 사용유무, 찍어야 할 위치와 모란과 괴석에 관한 구전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중 모란과 괴석에 관한 얘기는 평소의 나의 궁금증을 해결시켜 주었다.

꽃 중의 왕이라는 호칭을 가진 모란은 만개하는 주기가 짧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조상들은 모란과 괴석을 같이 그려 부귀영화와 장수라는 염원을 함께 누리고자했다고 한다. 조상들의 지혜로운 재치가 느껴졌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다.

이때 낙엽 만찬 ? 을 정리하느라고 진땀을 빼는 이웃들이 꽤 많아요. 마당 정리하는 분 들은 집 주인의 경계선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아서 혹시 낙엽들이 경계선 넘어 로 이사가면 눈 하나 까 딱 안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몇일이 지나 바람이 반대로 불면 다시 자기 고향을 찾아 가기 때문 입이다. 그래서 이곳에는 마당청소 하는 분들이 아주 분주 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늘 새해를 맞이할 때 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합니다. 저는 말은 앓 하지만 농담 삼아 중얼 거립니다. 자기가 언제 복을 주었다고 받으라는 것이야. 정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자기가 대리인 노릇을 한 다 는 셈 인가요 ? 그런데 한국 풍습이 이렇게 된 것을 절대로 무시하지 못합니다. 몇 해전 새해 첫날에 교회 청년부부가 일곱 살 난 애를 데리고 저희 집에 세배를 드리려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야 불야 세배 돈을 챙겨서 주었더니 이게 원 일입니까. 그 후부터는 매년 정월 초하루가 되면 세배 드리려 가자고 한데요. 그런데요 이번에는 맛 있는 간식을 손수 만들어 가지고 와서 함께 재미 있게 지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ANY WAY , HAPPY NEW YEAR, EVERY ONE !!!

시수필

우리도 이제 돌아가야 하나.

다람쥐 채바퀴들 듯, 한없이 뛰고 또 뛰어도 끝이 보이지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살아보아도 앞이보이기는 커녕,
가슴에 앓고있는 큰꿈, 허기진 공복,
아무리해도 채울 길이 없어서,
모든 미련을 버리고, 가족과 친구를
떠나 미국을 향하던 그날은,
미지의 삶에 대한 두려움과 새로운
희망으로 가슴이 내내 울렁했다.

바쁘게 떠나느라 준비도 없이, 한여름
더운날 일찍 도착한 버팔로뉴욕
학생들은 방학으로 돌아가고,
버려진듯 모여있는 기숙사 건물숲속
차도없이, 길 가르쳐줄 사람도 없는,
텅빈 넓은 대학 캠퍼스에서
혹시나 열린 가게를 찾아 먹을거리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던 며칠은
이제와 돌이켜보니, 어렵고 긴
미국생활의 시작이었을 뿐이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강의를 가고,
저녁늦게까지 연구실에서 보내는사이
두아이 피아노 레슨부터 댄스레슨,
피아노대회에서 연주회를 마치려면
먹을밥 싸들고 지도책들고, 학교에서
도서관을 거쳐 연주홀까지
온 동네를 하루종일 헤매며 기다리며
택시운전기사를 하던 집사람
그래도 자고나면 밀린피로가
회복된다는 그 사람, 신들린
사람이리라.

뒤를 돌아볼 경향도 여가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많은 날들
어느사이 다 자라버린 아이들, 새가
둥지를 떠나듯 집을 떠나고
항상 같이 계실줄 생각했던 부모님들,
가시고나서야 후회스러운데
우리를 늘 사랑해주시던 외삼촌 이모
그리고 친구도 하나씩둘씩 떠나니

다행히 건강한 집사람과 나, 광야에
홀로 서있는 우리를 발견하고 놀란다.

뉴욕에 사는 친구, 이제 삼년만
더일하고 나는 한국갈란다고
선언한다.
중년에 시작하신 동료 여자교수님,
햇수를 쉬어 한국으로 퇴직할 날을
짚는다.
먹을거 때문에 한국에 가 살고싶다고
늘 입버릇처럼 중얼거리는 집사람,
한국에 가면 먹고싶은 음식 가고싶은
식당이있는 마을 목록을 만든다.
생각없이 지내오다 이제서야,
이제 우리도 퇴직하고 한국에
돌아가야하나?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과 어울리며
미국말로 생활해온지 어느덧 수십년
가끔은 그래도 친구를 만나고
교인들과 담화하고 인척들과 통화를
했어도
짧은시간, 한정된 대화내용,
자주보지도 못하는 상황, 한국처럼
살지못했다.
어느덧 우린 이제 미국에 사는 사람들,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살 수있을까?
아는 듯 모르는듯, 익숙한듯
익숙지않는 한국, 새로 적응할
수있을까? 이나이에.

인천 공항에 내려, 공항버스,
지하철타고 또 갈아타는데 벌써
진이빠진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사람들 무리와
함께, 깊은 계단 또 높은 계단을
오르니
수십, 아마도 수백채 아파트 숲이,
빹빹히 들어선 상가 뒤로 펼쳐진다.
아무리 둘러보고 지도를 들여다
보아도 찾을 길이 막막하기만 하다.
다시 9번 출구로 돌아가 마중나오도록



이원식

경영학 교수
컨네티컷 주립대학교

부탁한 조카를 기다릴수 밖에없다.

전철타고 택시갈아타 힘들게 찾아간
친구, 식당에서 점심먹고 헤어진다.
오래만에 만난동창 술한잔
기울이고나서, 택시잡느라 이리저리
뛰었다. 늘 평상처럼 편한복장으로 나선
집사람, 연변에서 왔느냐고 묻더라.
화장도하고 좋은옷도 입으라 했는데
'당해도 싸다' 고 언니를 나무랜다.
골프 약속있다고 미리 작별인사를 하고
집을 나서는 형은 야속하기만하다.

우리도 미국에서 한국처럼 살면 어떨까.
공항에 도착해서 주소로 찾아오라고.
식당에서 식사하고 호텔로 돌아가라고,
게스트룸은 더이상 필요없겠지. 어느
사이 너무 멀어진 생활 방식, 생각의
차이, 언어 생활의 부족함, 가까운듯
멀어진 사람들, 편리한듯 불편한
생활환경, 알듯 모르는 일들 한국에
가서 새로 적응하면서 살 수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어린나이라도 아니고.

동북부 겨울추위를 피해 언니가
가까이사는 따뜻한 뉴멕시코 앨버커키.
추운겨울 멀리서 처음 방문한다고
너무나 친절히대해 주시는 목사님,
광야의 소리에 한인 회보, 관광
책자까지 자상히 전해 주시는 장로님,
사분사분히 귀속말까지 전해주시고
들어주시는 사모님과 정다운 교우님들
아마도 언젠가 우리도 일을 그만 두면,
뉴멕시코 앨버커키에 와서 살까나.

2021년 12월
뉴멕시코 앨버커키를 다녀가면서

한국역사 시리즈

고대 상나라와 한국과의 밀접한 관계 (上)

(다음 내용은 2014년 출판 『동이 한국사』의 저자 이기훈 선생의 『잃어버린 한국 역사: 기자조선』이란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 입니다.)

한승우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University of New Mexico
전도사/Computer Scientist



기자조선(箕子朝鮮)이란 기자(箕子)라는 중국 사람이 다스렸던 고조선(古朝鮮)이라는 말이다. 우리가 알기로는 단군이 고조선을 다스렸는데 왜 중국인이 고조선을 다스렸다는 것일까? 최근까지 기자조선의 언급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중국이 주장하는 것이며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기자조선은 신라, 고구려, 백제 모두와 연관된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알고 지나가야 한다. 기자조선은 1,122 BC에서 194 BC까지 927년 동안 이어진 나라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참고: <http://www.cheongjuhan.net/htmls/han04-1-05-8.htm>). 성경 역사에 빗대어 보면은 구약의 사무엘 사사/선지자의 시대(솔로몬의 성전 건립 165년 전)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 200년 전까지의 시대이다. 만약 어떤 나라가 한국 역사에서 1,000년 동안 이어졌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역사학계는 기자조선에 대한 역사를 부정해왔었다. 왜 한국과 중국의 주장은 이렇게 다른 것인가? 먼저 기자(箕子)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기원전 6세기에 살았던 공자(孔子)는 기자를 은나라 3대 현인 중 한 명이라고 추켜세웠었다. 그런즉, 공자의 말대로 기자는 은나라 사람이다.

은나라는 하(夏), 은(殷), 주(周) 이렇게 시작하는 중국 최초 왕조 중 하나였으며 1,600 BC 부터 1,046 BC 까지 있었던 나라였다. 은나라는 상(商)나라라고도 한다. 상나라는 중국 두번째 왕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중국의 첫 번째 왕조로 알려져 있다. 고고학에서 하(夏)나라와 연관된 유물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서 商 까지만 역사적 왕조로 인정받고 있다.



상(商)나라는 주변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전쟁을 하며 성장을 하였었다. (파란색은 상나라의 동맹국, 빨간색은 상나라의 적국.) 하(夏)나라를 물리친 商(殷)나라, 그리고



商을 물리친 주(周)나라. 엄(奄)과 박(亳)은 상나라가 지역별 수도로 세웠던 곳이다. 북동지역에 상나라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고죽(孤竹)이란 나라가 있다. 산둥반도에는 레이(萊夷)라는 부족이

있다. 6세기 양직공도(梁職貢圖)라는 사신의 그림에는 백제의 사람이 레이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회이(淮夷), 귀방(鬼方)과 견융(犬戎)은 흉노족의 조상들이고 나중에 선비(鮮卑)화 된 사람들이다.

상나라는 중국 역사를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이다. 중국을 고대문화를 대표하는 여러가지를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1) 상당히 높은 수준의 청동기 예술품(상감세공(象嵌細工)의 발달)과 전쟁에서 사용되었던 무기들, (2) 계층화된 중앙 정부 시스템, (3) 조개껍데기를 만국통화로 사용, 그리고 대표적으로 제일 큰 공헌은 (4) 한자를 만들어 동아시아 지역에 널리 보급했던 나라이다. 商은 갑자기 나타나 엄청난 문명을 일으킨 미스테리한 나라이기도 하다. (위의 사진은 마차에 운전자와



말의 순장(殉葬)). 이런 상나라의 왕 주왕(紂王)의 삼촌(숙부)가 기자였다. 즉 기자는 조카 대신 왕이 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왕족이었다.

그러나, 주왕이 음주와 쾌락에 빠져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다.

많은 귀족들이 주왕을 책망하였고 주왕은 그들을 잔인하게 죽였으며 왕에게 충고를 하던 사람 중 하나가 기자였다. 기자는 왕이 자신의 충고를 듣지 않자 결국 머리를 풀어헤치고 미친 사람처럼 신세타령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다.

상나라는 이러한 이유로 내부적으로 약해지고 외부적으로는 서쪽의 주나라에 의해서 상나라는 곧 1,046 BC에 멸망하게 된다.

주나라는 그 시대에는 이미 없어졌던 고대의 하(夏)나라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나라다.

중국은 스스로를 화하의 후예라고 부르고 있다. 화(華)란 중국 서쪽 화산(華山) 근처에 있던 주나라를, 하(夏)는 상나라에 망한 하나라를 상징하는 글자이다. 중국 서안(西安, 지금은 시안으로 알려져 있고, 고대에는 장안이라 불렀음) 인근에 있는 화산은 주나라 이래로 한나라, 당나라 등 중국 대표 왕조가 도읍한 땅이기 때문에 화하민족의 뿌리(華夏之根)라고 불리고 있다. 현대 중국의 공식 국호인 중화인민공화국에도 화(華)가 있으며, 지금도 한국에서도 중국교민을 화(華)교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민족명이나 국호에 주나라를 상징하는 華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3,000년 전 상나라를 몰아낸 주나라의 영향이 중국인들에게 얼마나 뿌리깊게 남아 있는지 알 수 있다.

2009년 중국 국무부에서는 《중국역사상식》이라는 공인 역사서를 발간했다. 그 역사서엔 서부 산지는 화하(華夏)족 영토, 동부 평원이 동이의 영토로 그려져 있다. 흔히 이 지역을 중국 중원이라고 부른다. 파란색 부위는 동이(東夷)족 수령인 치우의 세력 범위이다. 치우는

하나라 전에 있었던 고대 용산(龍山) 문명을 대표하는 동이족 사람들이다. 동이족은 중국의 평지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던 강한 부족이었다. 따라서, 중국에서 화하를 강조하는 것은 모순이다. 화하는 중국 중원의



원래 주인이었던 동이족을 몰아낸 침략자들이기 때문이다. 서쪽 산지에 있었던 주나라는 세력이 약했었다. 상나라가 동쪽의 래이, 회이 등 다른 동이족과 큰 전쟁을 일으키자 이를 틈타 상나라를 점령하게 된다 (circa 1046 BC).

이 때 상나라를 물리치고 중원을 차지한 주나라 무왕(본명 희발)은 감옥에 있던 기자를 석방한다. 周의 무왕은 평소 기자의 훌륭한 덕을 익히알아 그에게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지 물었었다. 기자는 새로이 왕이 된 무왕에게 세세하게 통치의 원리를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기자는 상나라 왕족이었으므로 주나라에게 복종하며 살기 어려웠을 것이다. 기자는 주나라의 신하가 되는 것을 거부했을 것이고 그래서 상나라 동북쪽에 있었던 조선으로 망명을 하게된다.



(여기서 조선은 고조선(古朝鮮)이며 고조선이란 나라는 역사서에 있는 나라 이름이 아니고 태조 이성계가 1392년 세운 조선과 구분짓기 위해 옛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는 周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임명)했다’고 나와 있지만 조선은 당시 주나라가 점령하지 못한 땅이었기 때문에 봉해진 것이 아니라 망명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무왕은 기자를 조선에 봉했으나 (기자를) 신하로 대하지는 않았다.” - 《사기》. 당시 상나라는 주나라에게 완전히 망해서 수도가 폐허가 되고 사람들은 대부분 강제로 멀리 이주를 당하게 된다. “성왕(주나라 2대왕)은 은나라의 남은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주공을 대장으로 동쪽으로 회이(회화 유역의 동이)를 정벌하고 엄을 멸망시켰다.” - 《사기》. 즉 주나라가 상나라 연맹과 적국들을 다 멸망시키고 영토를 차지했다는 말이다. 여기서 주나라가 멸망시킨 뒤 백성들을 이주시켰다는 상나라, 엄, 회이 등은 주나라 주요 민족인 화하족과 다른 동이족 국가들이었다. 그러면 조선으로 이주한 기자는 조선의 어디로 이주했을까? 중국의 주장대로 한반도로 이주했을까?

당시 상나라는 고조선 서쪽과 경계를 하고 있었다. 당연히 고조선 서쪽 지역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현재 고고학에서도 발견되는 것을 보면 상나라가 멸망하던 기원전 11세기 당시 중국 발해만 북부에서



갑자기 상나라 청동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자가 이끌고 온 사람들이 여기로 대거 이주한 증거라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기자는 중국 서쪽의 주나라가 멸망시킨 상나라의 왕족으로서, 주나라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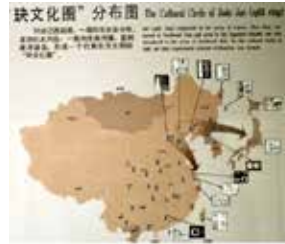


피해 고조선으로 이주한 사람이다. 기자조선이란, 이렇게 기자가 조선에 와서 왕이 되었다는 중국 역사서의 기록에 생긴 나라인 것이다.

그러나, 왜 한국史학자들은 이 기자조선을 부정하는 것일까? 아니, 기자조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세력 (상나라의 세력)이 한반도까지 온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기자조선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지도에서 보듯, 상나라 청동기가 아직 한반도까지 이르지 못했었다. 그래서, 한국 학계에서는 한국과 기자조선은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자세력 (상나라 유민)들이 이주한 이 지역이 요즈음 한국과 중국에서 조명을 받고 있다. 고고학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의하면 바로 이곳이 동아시아의 문명이 시작된 것이라는 것이 정설로 고쳐지고 있어서이다. 중국이 한국의 고대 역사를 독점적으로 자신들의 것이라 만들고 세계의 역사학계를 체계적으로 설득시키고 있는 동북공정이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원이 중국문명의 시작지(地)인 줄 알았는데, 오랑캐 땅에서 (만리장성 밖에 있는 동북지역) 중국의 최초의 고대국가형태, 중국

최초의 옥기, 중국 최초의 용 유적 등이 발굴되고 있다.

화하의 뿌리가 되는 산시성(山西省)도 아니고 화하종류, 또는 중원도 아니고 만리장성 넘어 중국인들이 호, 산용, 동이등의 중국에서는 상스럽게 여겨지는 이름불렸던 오랑캐 사람들이 살던 땅에서 중국 최초의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8,000 년 전에 이미 옥기들이 제작되고 있었고 이 옥기들이 일본, 한반도, 중국 남부로 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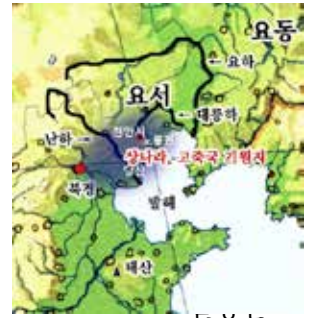
년전이면 이미 동아시아 문명이 시작되던 시기인데, 가장 앞선 문명이 바로 동북지역이었다는 것이다. 신석기때부터 동아시아를 이미 선두했었던 것을 알 수 가 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기원전 3세기까지 중국 영토가 아니었다. 기자가 옮겨간 이 지역이 ‘조선’이라고 하니, 이 땅은 그 전부터 오랫동안 (1,500년?) 중국이 아닌 고조선의 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이 지역은 고조선 뿐 아니라 상나라도 기원한 곳이라고 이미 중국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다. 상나라가 망하면서 왜 이지역으로 이주한 것일까? 바로 이 곳이 자신들의 기원지이며, 가장 가까운 형제국인 고죽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동아시아 문명이 시작된 곳이자, 중국 역사서에 기록된 상나라 유민이 이주했다는 ‘조선’이 있던 지역이었다. 고조선 서쪽지역으로 망명해 온 상나라 사람들이 그냥 고조선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테니 땅 좀 때 주쇼” 했을까?

당시 이 지역에 있던 고조선의 왕 ‘단군’은 기자에게 밀려 도망갔다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나온다. “(

고조선왕) 단군왕검은 1,500년 간 나라를 다스리다가 주 무왕이 즉위한 해 (상나라가



1046BC 무렵) 기자를 조선에 봉하자 (수도를) 장당경으로 옮겼다.”

《삼국유사》. 단군왕검이란 1,500 년 간의 여러 왕들을 하나로 통틀어 표현한 것이며 조선지역에 왕이란 뜻이다. 단군 할아버지를 몰아내고 기자 할아버지가 차지한 고조선의 초기 위치를 중국 역사서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1세기 완성된 《한서(지리지)》에서는 “요서 영지 (현 중국 천안시)에 고죽성이 있다” 라고 나오며 636년 출판된 《수서》에서는 “고죽의 땅은 주나라 시기 기자에게 봉해진 지역이다” 와 “고죽국 옛성은 노룡현 남쪽 12리에 있다” 라고 나온다. 당나라 945년에 쓰여진 《구당서》에서는 “요동의 땅은 주 나라가 기자에게 준 나라이다.” 당나라때 요동은 요하 인근을 말한다. 1695년 간행된 《일지록》에서는 “조선성은 영평부(난하 서안 ~ 북경 지역) 경내로, 기자가 봉해진 지역이다” 여기서 조선성은 고조선을 말한다. 즉, 기자를 와으로 한 상나라 유민이 처음 이주한 곳은 한반도가 아니라 현 베이징 동쪽 지역 일대였던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두 개의 조선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요하 서쪽의 기자가 점령한 조선, 즉 기자조선이 있고 다른 하나는 같은 지역까지 자리를 잡고 있었고 기자를 피해 요하 동쪽으로 이주한 단군조선이 있었다. 이 두 개의 조선은 서로 다른 나라라고 보는 것이 맞다.

수필

당신은 하나님이 저절로 믿어 지나요?

이근재

에비역 공군 대령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흔히 갖는 의문 중에 하나는 “과연 하나님은 저절로 믿어지는 존재인가? 아니면 믿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인가?” 하는 것이며, 또한 이들이 갖는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접하고, 이를 믿고, 실천적 행동화를 통해 그것에 가까워지고자 하는 노력을 합니다.

과연 이런 믿음과 실천의 변화는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변화인가?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검증적으로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인가?

기원전 250여년 경에 그리스의 철학자, 수학자, 천문학자...

아르키메데스(Archimedes)는 욕탕 안에 들어갈 때 물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고 “유레카(Eureka)!” 하는 소리를 지르며 부력의 원리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이러한 현상(부력의 원리)을 아르키메데스(Archimedes)는 신의 계시를 받고 불현듯 찾아낸 것인가?

너나 할 것 없이 욕탕 안에 들어갈 때 물이 넘치는 것을 모두들 경험했지만 그 누구도 부력의 원리를 찾아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르키메데스(Archimedes)만이 그 원리를 찾아낸 것인가? 신이 그를 유독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만 그런 능력을 준 것인가?

이 예시로부터 “과연 하나님은 저절로 믿어지는 존재인가? 아니면 믿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 아르키메데스(Archimedes)는 당시 왕으로부터 “왕관에 순금이 어느 정도 포함됐는지를 밝히라”는 지엄한 명령에 따라 그 해답을 찾아야만 하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둘째, 그는 물질의 비중이나 밀도 등 부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풍부한 물리학적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르키메데스(Archimedes)가 “유레카(Eureka)!”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그의 직관적

(Intuitive)이고 창의적(Creative) 활동의 결과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가 해답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과 부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물리학적 지식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면, 과연 그는 부력의 원리를 찾아내며 “유레카(Eureka)!”를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 외침은 아르키메데스(Archimedes)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간절함의 산물인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과 행동의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신의 계시를 받고 얻게되는 기적의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절실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인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사모하며 기독교적 가치관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발굴되는 유물로 볼 때 서로 청동기나 토기그릇, 무덤양식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고인돌의 분포도를 보면은 기자조선 땅에서는 보통 북방식(탁자형) 고인돌이 없으며,



반면에 동쪽 단군조선(한반도 남쪽 지역까지 포함)에는 북방식 고인돌이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조선 영역을 추론하게 하는 비파형 동검 분포도를 보면 고인돌의 분포도와 달리 요서와 요동 모두에서 발견되고 있다. 즉, 기자조선 지역(요하유역)에서 기원전 10세기경 만들어져 점차 동쪽으로 것이며 한반도에는 기원전 7



세기경에 들어왔다고 한다. (대릉하 유역은 기자조선 북서쪽 옛 고조선의 아사달이란 수도 지역을 가르킨다.)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김민순 목사 (505)975-0322
 주일예배 시간: 오후 1:00 pm (예배 후 점심식사 교제)
 어린이주일학교 시간: 오후 1:00 pm
 토요새벽예배 시간: 7:00 a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교회 웹사이트: www.galileeabq.com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주일예배 시간: 10:30 am
 새벽예배및 기도회: 5:30am(mon-sat)
 금요일예배및 기도회: 7:30pm-10pm
 주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라스 쿠르세스 장로교회 (Las Cruces)

유평산 목사 (915)329-3451
 주일예배 시간: 10:30am
 주소: 200 E. Boutz rd, Las Cruces, NM88005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김석훈 목사(505)699-4775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

알버커키한인교회

(Albuquerque Korean Presbyterian Church:PCA)

이명길목사 (505)730-3614(hand)
 교회 홈페이지: www.abqkc.org
 새이스라엘 월간 홈페이지: www.abqnim.com
 예배처: 13804 Spirit Trail Place NE Albuquerque, NM 87112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 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9:45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PreK/K-3/4-7) 10:00 am (Sunday)
 중/고등부 / 주일학교 예배 11:00 (Sunday)
 새벽기도회 6:00 am (Tue-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www.facebook.com/kumcabq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민명희 스텔라 사목회장 / 이성희 요한 총무/기획부장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화,오전), 성령기도회(수,저녁)
 기도회: 매주 토요일 아침 09:00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St. Frances Hall
 Contact : (505)-503-9846
 기도회 회장: 루피나 장경림 자매님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월~토)
 성경공부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주소: 12120 Copper Ave.NE,Albuquerque,NM 87123

클로비스 한인 교회(Clovis)

이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주일예배: 12:00pm 수요일오후 11:30am
 금요일예배: 7:30pm
 아침기도회: 7:00am(월, 화, 목, 금)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505) 453-5461
 주일예배: 12:00 pm (한국어) 1:00 pm (Indian 영어)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거무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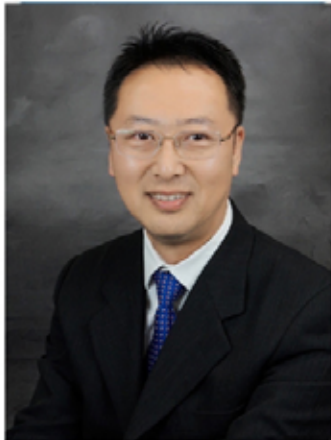
알버커키 Albuquerque		식당 Korean Restaurant	식품점 Korean Grocery	주택용자 Loan Officer
건축/페인트 Painting	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	A-1 한식 Cafe 6207 Montgomery Blvd. NE (505)275-9021	A-1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NE ABQ (505-275- 9021)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김미경 Mi Kyong Kim 6745 Academy Rd, Suite B Albuquerque, NM 87109 Office: (505) 208-4961 Cell: (505) 379-2944 mikyong.kim@flagstar.com Flagstar Bank
공인회계사 CPA	Kelly Liquors #7 1418 Juan Tabo NE (505)292-4520	Asahi Express 2106 Central Ave. SE Ste.A ABQ (505)243-8089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중재서비스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Kelly Liquors #8 11816 Central SE (505) 299-3366	Asian Pear 8101 San Pedro Dr.NE, Ste D ABQ (505)766-9405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교회 Church	Kelly Liquors #9 1903 Coors SW (505) 873-4477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	치과 Dental Clinic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	Kelly Liquors #10 4312 Coors SW (505) 877-2777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갈릴리장로교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BQ, NM87112 505-975-0322	Kelly Liquors #14 6300 San Mateo Blvd NE Suite R (505) 797-9966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NAPA Family Dental Dr. 윤자정 10820 Comanche Rd, NE Albuquerque, NM 87111 ph)505-323-7700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BQ (505-803-7716)	변호사 Law Firm	Korean BBQ & Sushi 4214 Central SE ABQ (505-797-8000)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201 Third St. NW Suit 1300 Albuquerque NM 87102 (505)888-1335 jroh@cuddymccarthy.com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자동차정비 Auto Repair	태권도 TaeKwonDo
알버커키한인장로교회 13804 Spirit Trail pl. NE ABQ (505-730-3614)	부동산 Realtors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The Garage 자동차 정비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마이크 조 웹사이트:thegaragenm.com	Dynamic taekwondo academy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
단요가 Dahn Yoga	김영신 Yong Shin Kim: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알버커키505-797-2211 커튼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튼505-286-3535 www.dahnyoga.com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Tamashi Japanese 6400 Holly Ave. NE ABQ NM87113 (505-717-2457)		
리커스토어 Liquors	세탁소 Dry Cleaners	Yummi Hous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Casa Liquor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한의원 Acupuncture 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Dr. James D Park: (박달규)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6 87113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화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교회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전화번호(972) 822-1239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	로스루나스/벨렌/ 버나리요/보스키팜 Bernalillo/Belen/Bosque Farms' Los Lunas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87004 (505) 867-5838 Kelly Liquors 300 N Main st. Belen, NM87002 (505) 864-2242 Kelly Liquors 395 Bosque Farms Blvd. Bosque Farms, NM87002 (505) 916-5656 치과 Dental Clinic Los Lunas Smiles Dr.윤자정 219 Courthouse rd. Los Lunas NM87031 (505-865-4341)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De Arco Liquor (@Solana Center) 915 W. Alameda St. Santa Fe, NM 87501 (505) 954-1399 Kelly /Liquor Barn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960 Kelly Liquor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206 교회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87501 (505)699-4775 클로비스 Clovis 교회 Church 클로비스 한인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 식당 Restaurant Bokka 레스토랑(한식) (박창문, 박미란) 1708 Prince St. Clovis, NM 88101 (575)-763-2262	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 식품 Korean Grocery K's Oriental Food Store 921 Mai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 치과 Dentist KidsKare PC Family Dentists 600 Texas St.C Clovis NM88101 치과의사:박요셉-Sherry 부부 (575)-762-1900 화밍톤 Farmington 교회 Church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453-5461) 상점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호텔 Hotel The Ambassador Inn (조영자) 1520 Candelaria NE ABQ NM 87107 505-345-2547 라스베가스 Las Vegas 치과 Dentist 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미장원 Hair Salon 차진주 헤어(Peal's Place) 800 Trinity #E Los Alamos (505)412-5294 교회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699 -4775	산타페 Santa Fe 손톱미용 Nails Tiffany Nails(윤성희) 410 Old Santa Fe Trl. #E (505)982-6214 변호사 Law Firm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 식당 Restaurant 박성희/신숙희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Kohnami Japanese Cuisine 313 S. Guadalupe St. Santa Fe (505-470-1561) Hee Joo	교회 Church 클로비스 한인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 식당 Restaurant Bokka 레스토랑(한식) (박창문, 박미란) 1708 Prince St. Clovis, NM 88101 (575)-763-2262	상점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 5800) (Fax 575-523-7700)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 0098)	리오란초 Rio Rancho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	변호사 Law Firm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 식당 Restaurant 박성희/신숙희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Kohnami Japanese Cuisine 313 S. Guadalupe St. Santa Fe (505-470-1561) Hee Joo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New Mexico 2022년 1/2월호 발행일 : 2022. 1. 1. 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부장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 광야의 소리 원고는 매 짝수달 20일까지 받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독자 여러분의 좋은 글과 사진을 위의 E-mail주소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단 정치적인 글은 사양합니다.)	

광고를 통한 후원에 관해서는 voiceofnm@gmail.com으로 또는
(505)275-9021(광고담당:신옥주) 로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Han Ju Lee
Financial Professional
CA Lic. 0K41143
NM Lic. 17684619
carlitos3840@gmail.com

은퇴플랜 생명보험 401K Rollover
학자금 롱텀케어 텍스절세플랜

**당신의 미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Check Points:

- 평생을 보장받는 은퇴연금을 준비했나?
- 중병이나 만성질환에 대비하고 있는가?
- 세금 절세플랜을 가지고 있는가?

Call Today!

213-321-8787

R1 NEW MEXICO
THE FUTURE OF REAL ESTATE



김영신/부동산중개인

Yong Shin Kim

505.321.7695

yongshinkim001@gmail.com

www.R1newmexico.com

505.883.9400